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COPY RIGHT 2026

MEDIA CENTRAL NEWS

제 60033호

Wednesday, July 15 2026 A

바이든 시절 때 제정
새로운 캠페인 전개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성소수자(LGBTQ)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아동을 해당 아동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인정하는 가정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든 시대의 위탁 교육 양육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ACF)은 2024년 4월에 제정된 해당 규정을 연방규정집에서 삭제하면서, 이번 조치가 명확성을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더 많은 위탁가정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후 발효되지 않았지만, 행정부는 이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알렉스 아담스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데일리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더 많은 가정이 위탁 아동을 환영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는 행정부의 신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위탁 가정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아이들을 환영하고,



아이들이 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은 연방 기금을 지원하는 아동 복지 기관들이 위탁

보호 중인 아동 중 자신이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거나 자신의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밝히는 아동들을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 줄 가정에 배치하도록 보장할 것

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정 폐지가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의 “미래 육성” 계획과 국가 차원의 위탁 양육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관련 행정 명령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차관보는 정부가 위탁 보호 시스템에 들어오는 아동들을 위해 이용 가능한 위탁 가정의 수를 늘리기 위한 “모든 아이들을 위한 가정”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가정이 부족하다”라며 “입국하는 아동 100명당 57채의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들을 위한 충분한 가정을 확보하기 위해 더 나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단기 임대 숙소, 호텔, 정부 사무실 공간 등에서 지내게 된다”고 강조하며, 강한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확신을 가진 가정이 위탁 양육에 적극적인 가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연방 정부가 이들의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든 시대의 규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담스 차관보는 “2024년 지정 배치 규칙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규칙은 가족들을 ‘LGBTQ 친화적’인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으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메타, AI로 병가자·임산부 등 해고 표적”...전현직원 26명 소송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로 병가나 출산휴가를 간 직원을 해고 대상으로 표적 식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메타의 전현직 직원 26명은 메타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해고 대상이 됐으며 익명으로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일리노이·워싱턴·뉴욕·펜실베이니아·플로리다·워싱턴DC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이들 가운데는 승인된 출산 휴가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과학자와 의료 목적 휴가 중에 해고된 관리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메타가 AI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해고 대상을 추

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메타메이트’라는 이름의 사내 대형언어모델(LLM) 보조도구와 직원 업무를 모사하는 ‘세컨드브레인’ 에이전트, 키보드 입력과 화면 활동 감시 도구, AI 토큰 사용량 대시보드 등이 이 과정에 사용됐다고 지목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알고리즘 시스템이 휴가나 병가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휴가·병가 중인 직원은 AI 토큰을 사용하거나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데,

AI가 이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오판해 부당하게 해고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타의 이와 같은 조치가 모성보호나 장애인 차별 금지, 노동과 관련한 연방법과 주법에 어긋나는 차별·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재 절차와 해당 AI 알고리즘에 대한 독립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해고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체불임금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 등에 대한 권한을 중재기관에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본안 소송을 법원에서 진행

하지 않고 중재 절차를 선택한 것은, 이들이 애초 메타와 맺은 고용계약 조건에 집단 소송을 금지하고 개별적인 상호 중재에 동의한다는 합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메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인력 관리와 조직 관련 결정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AI가 아닌 인간이 내리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메타는 지난 5월 AI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 인력 10%에 해당하는 8천 명을 구조조정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품지불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라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트럼프, 통행료 번복에 “중동 동맹국이 해결해달라 전화”

“이란의 선공은 큰 실수…한때 제재 완화 후회 안해”
“수수료 개념 안 좋아하지만 대가 없이 해협 지키는 건 불공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종료를 선언한 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재개한 것과 관련, “이란이 먼저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와 회담 자리에서 MOU 체결 이후 이란의 제재를 완화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협상을 성사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7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후 양측간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중동 위기가 휴전 이전 전쟁 상황으로 회귀한 것을 이란 책임으로 돌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이틀 전만 해도 우리는 합의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협상을 못하겠다고 했다. 합의 관련해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공격했는데, 이는 큰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중동의 미 동맹



이라크 총리와 양자회담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국 혹은 파트너 국가 지도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전 세계,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위해 해협을 지키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점이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갑작스레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추진했던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과 관련해선 “이란이(제재 대상에) 추가될 예정인데 이는 매우 큰 일이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생충감염 사이클로스포리아증 환자 급증…30여개주 확산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리아증 확진자가 5월 1일(현지시간) 이후 1천645명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주일 전보다 8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확진 건수 249건의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CDC는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과소진료·보고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환자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현재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례가 5천100건 이상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감염 사태에서 가장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시간주는 지난 9일 기준 감염자 수를 3천309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타코벨 매장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가운데 141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 같은 집단 발병에 멕시코식 음식점 ‘타코벨’ 매장이 연관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일부 타코벨 매장은 양상추, 고수, 양파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타코벨 측은 이는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건 당국이 타코벨이나 특정 원재료 등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시간주 보건 당국도 상추나 샐러드용 채소를 집단 발병의 잠재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채소 등을 섭취해 감염되는 장 질환이다.

1주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와 식욕 부진, 메스꺼움 등 증상이 나타나며 미열과 구토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CDC는 농산물을 먹기 전 흐르는 깨끗한 물에 꼼꼼히 씻을 것과 설사가 며칠씩 지속되면 의료진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타코벨 모회사 ‘암! 브랜즈’의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약 4.5% 급락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만회하며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15분 기준 전일 종가 대비 2.9% 하락한 157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워런 버핏, 게이츠재단 기부 20년만에 중단

‘투자의 구루(스승)’로 불리는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 이사회 의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설립한 자선·연구 지원 재단인 게이츠재단에 대한 연례 기부를 중단했다.

버크셔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버크셔 주식(B주) 총 1천200만주를 사별한 첫 부인인 수전 톰슨 버핏의 이름을 딴 재단과 자녀들인 하워드·수지·피터가 각각 이끄는 3개 재단에 나눠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 대상은 4개 재단으로 한정됐으며, 버핏이 그동안 거액을 기부해온 게이츠재단은 제외됐다.

버핏이 게이츠재단을 기부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버핏이 2006년 버크셔 주식을 기부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버핏은 이날 성명에서 “내 목표는 앞으로 8년 안에 내가 보유한 버크셔 주식 전량을 처분하는 것”이라며 “내게 남은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2034년 12월 31일까지 4개 재단에 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재단은 지난 4월 로펌을 선임해 재단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2019년 사망)과의 관계를 조사 중이라

고 직원들에게 알린 바 있다.

게이츠와 엡스틴 사이의 친분은 올해 초에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틴 관련 수사 기록, 이른바 ‘엡스틴 파일’에 포함된 두 사람 간 서신 교환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게이츠는 엡스틴과의 친분이 공개된 후 게이츠재단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여러 질문에 상세히 답하며 사과한 바 있다.

☁️

☀️

워싱턴 날씨 (°F)

7월 15일(수) 101-78

16일(목)	100-74	☁️	19일(일)	89-71	☁️
17일(금)	95-74	☁️	20일(월)	90-73	☁️
18일(토)	86-72	☁️	21일(화)	91-70	☁️

“새로운 시작”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센터빌 중앙장로교회 근처

5 에이커 전원주택

\$1,050,000

특정

최신 수영장, 차고 2, 방 3, 화 3

레스턴 싱글을 셀러 클럽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특정

차고 2, 방 5, 화 3, 워드아웃 부엌

현턴 럭셔리

타운홈

\$850,000

특정

차고 3, 방 3, 화 3

세금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오너분들을 위한 똑똑한 절세”

지금은 절세가 곧 생존이고 경쟁력입니다.

【 은퇴 후 소득에 대한 미리하는 세금플랜, Mega Backdoor 등 Roth Conversion 을 이용한 절세 전략! 】

왜 이 플랜이 필요할까요?

개인 401(K) 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
사업주에게 조기 은퇴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세금 공제와 은퇴 준비를 한 번에!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직원이 없는 부부 자영업자: Solo 401(K)로 세금 공제 + 은퇴 플랜을 동시에!
고소득 전문직 오너 (직원 10 ~ 15명 이하): 큰 세금 혜택 + 은퇴 플랜 마련!

UNI Financial Marketing

worldwide

MDRT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로리 문

Cell. 703.895.7648

Office. 703-865-8788

send2lorimoon@gmail.com

재정 플랜 전문가 & 연방 세무사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Rockwell

ZURICH

Accordia Life

Columbia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FG

MassMutual

Corebridge

Corebridge

National Western Life

MetLife

페어팩스 VA

리치몬드 VA

엘리콧 시티 MD

페이트빌 NC

보스턴 MA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5085 Morganton Road, Suite 300
Fayetteville, NC 28314

100 Summit Drive,
Burlington, MA 01803

워시 의장 “높은 인플레이션 용납 않겠다”...연준 독립성 강조

취임 후 첫 의회 청문회 출석...“지난 5년간 인플레이션 급등과거 일 될 것”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4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금리 정책도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가능한 한 그에 최대한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책을 올바르게 운영할 것이

고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달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계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워시 의장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와 다른 방향으로 압박을 가해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법을 준수하고 데이터를 따르며 가장 최선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답변으로 보인다.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참모진이 통화정책상의 압박을 가하며 워시 의장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법원이 이미 답을 한 문제”라면서 “내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지칭하는 것으로, 연준 독립성 유지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워시 의장은 “연준에서의 나의 목표는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부에 정치가 작용한다면 제거할 것”이라고도 했다.

워시 의장은 대차대조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시 의장은 “대차대조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알리고 설명하고 토론할 것”이라며 “이 위원회와 금융시장 전반에 제대로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대차대조표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이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펴면서 대차대조표가 비대해져 이를 축소해

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워시 의장은 연준 소통 체계와 관련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적어도 저로서는 ‘불’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 체계 변화가 정보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FOMC에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선제 안내를 없앴고 금리 전망치도 제출하지 않았다.

워시 의장은 인공지능(AI)의 파급효과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연준의 임무가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AI 개발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준 의장은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출석해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더넘치는교회, 창립 2주년 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

버지니아주 클리프턴 소재 ‘더넘치는교회’(담임 김은경 목사, The Overflowing Church)가 지난 7월 12일,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새로 이전한 Clifton Presbyterian Church에서 창립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장 이택래 목사(린치버그한인교회 담임)는 ‘예수! 예수!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두 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교회가 되는 것이며, 교회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예수시다. 사도바울이 평생 예수를 외치며 살다가 순교당하여 목이 잘려 입으로 외칠 수 없으니 세번 피가 솟구쳐 예수! 예수! 예수! 외친것 처럼 더넘치는교회에 예수가 넘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한다”고 말했다.

더넘치는교회는 2024년 창립 이후



창립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예배처소로 옮긴 ‘더넘치는교회’ 성도들은 지난 12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2년 동안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위치한 Pender United Methodist Church의 예배 공간을 임대해 예배를 드려왔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올해 7월부터 보다 넓고 안정적인 예배 환경을 갖춘 Clifton Presbyterian Church로 예배처소를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창립 2주년 감사예배는 지난 2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시작될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더넘치는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앞으로도 말씀과 치유, 전도와 선교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담임목사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시작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 새로운 예배처소는 단순한 공간의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새로운 출발이다.

더넘치는교회는 앞으로도 말씀과 치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더넘치는교회의 성도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을 다짐했다.

홍알벗 기자

백악관 인근 집단 약물 과다복용 사건

지난 7월 13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경, 백악관에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여러명이 약물에 중독된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발견 된 곳은 워싱턴 DC 북서부 지역 뉴욕 애비뉴 1300블록으로, DC 소방 및 구조대(DC FEMS)의 요청으로 메트로폴리탄 경찰국(MPD)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성인 5명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과다복용(Overdose)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서 2명은 응급 처치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상태가 위중하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해당 지역의 불법 마약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번엔 발생한 집단 약물 과다 복용 의심 사건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사건이다.

홍알벗 기자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구독신청
703-281-9660

MEDIA CENTRAL NEWS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쿼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프렌즈
데이케어
Friends
HEALTH CARE TEAM

“부모님은 행복하고 가족은 안심하는
프렌즈 데이케어에서
건강과 웃음, 친구를 선물하세요!”

800-350-3147 프렌즈 홈케어
571-424-7527, 7528 프렌즈 데이케어
8003 Forbes Place, Springfield, VA 22151
friends@friendshealthcareteam.com

영업시간 월~토 (주 6일) 오전 8시~오후 2시

교통사고 최대보상 끝까지 간다! 신성재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FORTIS LEGAL GROUP
— STRENGTH IN ADVOCACY —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9711 Washingtonian Blvd. Ste 550
Gaithersburg, MD 20878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워싱턴 지역 청소년들과 한국 역사·문화·신앙 체험

워싱턴청소년재단
‘한미국제교류 프로그램’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조동수 목사)은 지난 7월 1일부터 11일까지 9박 10일간 ‘한미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워싱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앙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워싱턴 지역 청소년 15명을 비롯해 조동수 이사장, 이병완 목사, 김성도 목사, 김범수 목사 등 총 2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고 한국 청소년들과의 신앙교류를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한사랑감리교회(담임 황성수 목사)와 자매결연 형식의 신앙교류를 맺고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성장한 한인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사랑감리교회는 서울 일정 동안 참가자들의 이동을 위해 대형버스를 제공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서울에서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남산, 명동, 홍대거리, 청계천, 롯데월드, 난타공연, 도라산전망대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현대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안동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둘러보며 전통 유교문화와 한국의 정신적 유산을 배웠다. 경주에서는 무열왕릉, 천마총, 대릉원, 황리단길, 첨성대, 동궁과 월지(안압지),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를 탐방하며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 송정 해변열차, 동백섬, 오륙도, 유엔기념공



경주를 방문한 워싱턴 지역 청소년들이 첨성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 흰여울문화마을, 하늘전망대, 태종대,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BIFF광장, 용두산공원 등을 방문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동수 이사장은 “워싱턴의 한인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 매우 뜻

깊은 프로그램이었다”며 “앞으로도 워싱턴청소년재단은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차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수牧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 그리고 각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

린다”며 “많은 분들의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에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함께 인솔자로 참여한 이병완 목사 와 김성도 목사, 프로그램 디렉터 김민지, 코디네이터 김지현도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프로그램을 통해 워싱턴의 청소년들에게 더 높고 깊고 넓은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워싱턴청소년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미 청소년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제2회 한미국제교류 한국방문 프로그램은 2028년 여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프로그램 디렉터 240-722-7198

홍알벳 기자

애난데일 K마켓, 팔도강산 농수산물 특판행사

건어물·젓갈 등 300여 품목
최상품 취급...8월2일까지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K마켓(대표 김덕형)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팔도강산 내고향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오는 8월 2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한국 팔도강산에서 생산된 최우수 상품 300여개 이상의 상품이 준비되었으며,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무더운 여름철 동포들의 건강한 식탁 관리를 위해 품질과 신선도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번 특판 행사에는 생선과 건어물을 비롯해 떡, 꽃



팔도강산 내고향 농수산물 코너에서 관계자들이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

감, 한과, 김, 엑기스, 김치, 젓갈, 잡곡, 기름, 한약재 등을 특별 가격으로 판매한다.

팔도강산 내고향 농수산물 특판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오병택 드림 윈트레이딩 대표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한인들의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상품들을 준비했다”며 “시원한 매장에서 편리하게 쇼핑하고 다양한 한국산 먹거리를 구입하길 바란다”며, 일차 매장에 오셔서 제품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K마켓은 초복을 맞아 ‘7월의 식탁’ 행사를 진행하는 데, 삼계탕용 재료와 수박 등을 스페셜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과 여름 냉면류 재료도 특별 가격으로 제공한다.

김덕형 K마켓 대표는 “지치지 쉬운 여름철 건강 식재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대비 3.5%로 둔화

지난달 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승률이 5월(4.2%) 대비 둔화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3.8%)을 밑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하락해 역시 전문가 예상(-0.2%)을 밑돌았다. 전월 대비 하락 폭은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4월(-0.8%)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앞서 미-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 3월 0.9%로 치솟은 데 이어 4~5월에도 0.5~0.6%를 보여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키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미-이란 간 중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게 소비자물가 압력을 약화하는 데 기여했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5.7% 하락했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9.7% 떨어졌다.

다만,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로는 15.7% 올라 전년 대비 상승률을 높게

유지하는 요인이 됐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올라 역시 5월(2.9%)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전월 대비로는 보합에 머물렀다.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 역시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0.2%를 예상한 전문가 전망에 못 미쳤다.

근원지수는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서머타임 페지’ 새 법안 발의

연방의회 초당적 발의
표준시간 연중 적용 추진

미국에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시계를 조정하는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일광절약시간제)을 폐지하고, 표준시(Standard Time)를 연중 적용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됐다.

13일 민주당의 메리 게이 스캔런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팻 해리건 하원의원은 초당적으로 ‘2026 선샤인 포 아워 키즈 법안(Sunshine for Our Kids Act of 2026)’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 표준시를 연중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각 주가 원할 경우 연중 서머타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번 법안은 서머타임이 아닌 표준시를 영구화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다.

수면과 생체리듬 전문가들은 대체로 표준시가 건강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 수면 주기와 생체시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연중 표준시를 유지하는 곳은 하와이주와 애리조나주 일부 지역뿐이다.

홍알벳 기자

“TSP·연금·401K·IRA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TSP, 401K Rollover 전문

원금보장 인덱스 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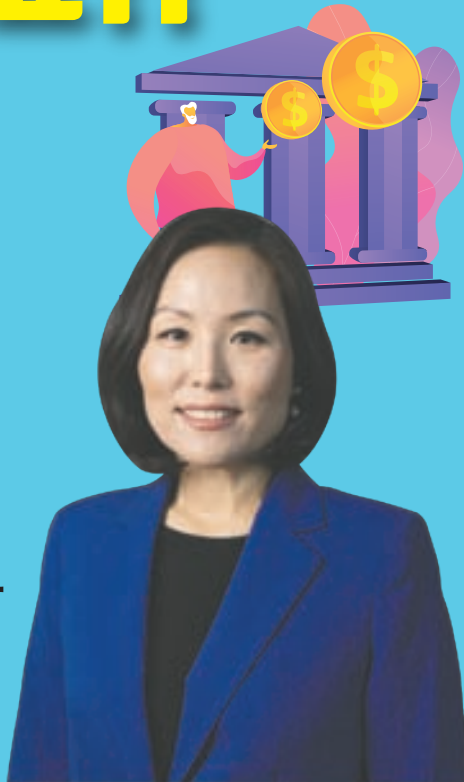
따박따박 평생 연금, 장기 요양시 두배로

리빙 베네핏 생명 보험

암, 풍과 같은 중질병과 장기 요양시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음

캐런 안 (Karen Ahn)

연방공무원 은퇴 컨설턴트 (Certified Federal Retirement Consultant)
세금 상담 전문가 (Certified Tax Advisor)



High Calling Financial

703-688-2645

10505 Judicial Dr. #300 Fairfax, VA 22030

karenahn@highcallingfinancial.com

https://www.highcallingfinancial.com

재정 전문가 캐런 안이 현재 재무 점검 → 세금 절감 → 보험과 은퇴 준비 → 상속 계획까지 인생 전 과정을 돕는 종합 재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A 페어팩스, 초고령 사회 본격 진입

예산관리국, 인구통계 보고
65세 이상 2045년 32만명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초고령 사회가 본격화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관리예산국이 지난 8일 발표한 새로운 인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현재 19만 명에서 2045년까지 약 3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층을 포함한 전체 인구는 2025년 약 120만 명에서 2045년 약 134만 명으로 12% 늘어난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68%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연도별로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25년 19만605명(15.9%) △2030년 23만2816명(18.8%) △2035년 26만7435명(21%) △2040년 29만6803명(23.9%) △2045년 32만966명(23.9%)로 추산되고 있다.

이 수치는 연방 인구조사국이 실시한 지역사회 조사 데이터를 카운티별



한인이 운영하는 데이케어를 찾은 노인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로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현재 전체 인구의 28.1%를 차지하는 55세 이상 연령층이 2045년에는 35.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45년에는 55세 이상 카운티 주민수가 47만1300명으로 추산되는 데, 이는 1970년 연방 인구 조사 당시 기록된 카운티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 보고서는 2025년 1월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의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인구가 수 주 단위에 대한 추정치 및 예측치와 주택 가치 및

개발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필립 헤이건 관리예산국장은 “이러한 인구 통계 보고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과 기업의 변화하는 요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는 행정 구역, 도시, 우편번호 및 인구 조사 구역을 포함한 지리적 영역별로 분류된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남편이 쏜 총 맞고 60대 부인 사망

지난 7월 12일 일요일 밤 10시 21분, 페어팩스 카운티 911 상황실로 첫 번째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수화기 너머로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렸지만 곧 끊겼다.

밤 10시 39분, 두 번째 911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한 남성이 “아내와 가정 불화로 다투었으며, 아내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신고 받은 경찰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부인 치렌 제이미슨(60)은 총격으로 숨진 상태였다.

범인은 은퇴한 수학교수 남편 린랜드 제이미슨(64) 경찰은 현재 이들 부부가 범행 직전 어떤 원인으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는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주변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미 공군 헬기 워싱턴DC에 불시착

7월 13일 월요일 밤 9시 26분경, 미 공군 UH-1N 헬기 워싱턴DC에 불시착하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다.

헬기가 불시착 한 곳은 워싱턴DC 북서부 지역 폭스홀 로드 및 화이트 헤이븐 파크웨이 인근의 글로버 아치볼드 공원 내부로, 이곳은 독일 대사관 관저와 매우 가까운 ‘워싱턴 수도관’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야간 비행 임무 중이던 조종사들이 기체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기계 소음과 강한 진

동을 감지해 관제탑에 해당 사실을 긴급 통보했으며, 비행을 강행할 경우 추락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비상착륙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불과 2주일 전 메릴랜드주 유니언 브리지 근처에 동일한 제1헬기비행대대 소속 UH-1N 헬기가 결함으로 불시착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발생한 유사 사고로, 기종 노후화나 정비 부실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람도 애완동물도 모두 불조심

화재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7월 10일 오후, 메릴랜드주 벨캠프 위치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다.

당시 집주인 가족은 모두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 설치된 화재 감지 시스템이 연기를 포착해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긴급 신고를 접수했다. CCTV에 포착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중 한 마리인 ‘보’가 조리대 위에 경충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앞발로 토스터의 작동 스위치를 우연히 누르게 된 것.

전원이 켜진 토스터가 과열되면

서 주변에 놓여 있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었고, 불길은 순식간에 주방 전체와 집안으로 번졌다. 이날 화재를 유발한 ‘보’와 또 다른 반려견 ‘애디’는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고양이를 비롯한 나머지 반려동물 3마리는 직식해 숨졌다.

미국 소방당국은 반려동물이 주방 조리대나 가스레인지, 토스터 등을 건드려 발생하는 화재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며, 외출 시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두거나 가스레인지 안전 덮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홍알벗 기자

“백악관,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추진”

백악관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비용이 일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자발적’ 서약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빅테크 기업 경영진과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에 서명했다. 서명에 참여한 기업들은 구글, 메타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아마존, 오라클, xAI 등이었다.

서약은 각 기업이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때 자체 전력공급 시설을 건설하거나 임대,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기존 송배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데이터센터 (EPA=연합뉴스)

터센터 개발·운영업체 경영진이 참여해 비슷한 서약을 맺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력 인프라 확장을 주도하는 주 정부 인사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행사는 몇 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참석 기업들의 명단이 조율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은 매우 영향력이 커서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이들의 전기요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는 데 드는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가급적 자체 발전소를 갖추도록 하며, 정부는 이 경우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2~4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백악관이 발전회사와 데이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방앗간 / 반찬 / 잔치음식 전문점

낙원떡집
케이터링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oming Soon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창점(미락조 옆)
웨이리노래방
영아패션

미락조 몰 대창점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주차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미·러 우주비행사 같은 우주선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양국 우주 수장도 회동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비행사들을 태운 우주선이 14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아널 메논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소속 표트르 두브로프, 안나 키키나는 이날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러시아의 소유스 MS-29 우주선에 탑승해 우주로 날아올랐다.

이들은 8개월간 ISS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우주선은 발사 3시간 뒤 정거장에 도킹할 예정이다.

이날 발사 현장에는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이 참석했다.

NASA 수장이 바이코누르를 방문

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양국 간 긴장 속에서도 우주 프로젝트에서는 미·러 협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이작먼 국장은 전날 우주비행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무를 준비한 로스코스모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몇 달 동안 이뤄진 통합 작업은 이번 임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또 그는 이날 발사에 앞서 드미트리 바카노프 로스코스모스 사장과도 별도로 회동했다.

NASA 우주비행사 메논에게는 이번이 첫 번째, 러시아 우주비행사 두브로프와 키키나에게는 두 번째 우주 비행이다.

세 사람은 ISS에 도착하면 앞서 체류 중이던 NASA 소속 제시카 메이어, 잭



1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서 드미트리 바카노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가운데)과 재러드 아이작먼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해서웨이, 크리스 윌리엄스를 비롯해 유럽우주국(ESA) 소속 소피 아드노, 로스코스모스 소속 세르게이 쿠디스

과거 냉전 시대 치열한 우주 경쟁과 이별이었던 미국과 러시아는 이후 ISS 등 여러 프로젝트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으나, 양국 우주비행사들이 서로의 우주선에 교차 탑승해 ISS로 향하는 등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만큼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NASA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협력 계획은 무산된 상태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 에너지 수출과 핵심 기술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된 러시아는 향후 달 탐사 임무와 관련해 미국 대신 중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월 100만원엔 못 데려온다”...러시아, 북한 환경미화원 채용 포기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북한 노동자를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려 했지만 인건비가 너무 비싸 포기하고 대신 아프리카 노동자를 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알베르트 유마딜로프 러시아 옐렌부르크 시장은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지난해 카자흐스탄 접경 도시인 옐렌부르크의 환경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 했지만 북한 측 관계자들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그는 옐렌부르크시가 환경미화원에 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은 월 5만5천루블(715달러·한화 약 106만원)였으나,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에서도 월 1천400~2천100달러(209만~313만원) 수준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모습 [타스=연합뉴스]

의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북한 노동자들은 월 5만5천루블을 받고는 (러시아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채용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은 직접 봤는데, 로봇처럼 일한다. 정말 로봇 같다”며 “생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을 거리 청소 업무에 채용했으며, 현재 세네갈 출신 3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북한 노동자들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피터 워드 연구위원은 북한이 노동자들을 그처럼 높은 가격에 내세울 수 있다면 “홍보 부서가 매우 뛰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기술(IT) 분야 일부 고소득 종사자나 당 간부, 군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배급과 주거를 포함한 실질 보상이 그 정도 수준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평균적인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1천400달러가 아니라 1천400원에 더 가깝다”고 강조했다.

동서대의 러시아 경제 연구자인 크리스 멘데이도 북한 정부와 중개업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데다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중개업자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충돌 종식 협상...헤즈볼라가 변수

로마 주재 미국대사관서 회동 이스라엘군 시범구역 철수 논의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지대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틀간 협상을 시작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측 대표단 차장은 이날 오전 삼엄한 경비 속에 로마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들어갔

다. 이날 협상의 주요 의제는 레바논 남부 ‘시범 구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다.

시범 구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면전을 종식하고 국경 지대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단계적 철군을 위한 시험 지대다.

양측은 지난 달 미국 중재로 시범 구역에서 이스라엘 병력이 철수하면 레

바는 정부군이 치안과 보안 통제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의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안보 점검 등을 이유로 2개 시범 구역 중 1곳에서 철군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 하리면서 이행을 미루고 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2개 시범 구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계획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로마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대통령실은 전날 “로마로 파견된 대표단이 추가 논의에 앞서 이스라엘 측에 즉각 병력 철수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양측의 기본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을 볼지는 미지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병력 철수는 없다는 입장



로마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레바논 협상단 차량 [AFP=연합뉴스]

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대사관은 이날 협상과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다. 협상은 15일까지 비공개로 열린다.

보험사에 클레임하기 전, 먼저 상담하세요!

주택 · 상가 · 렌탈 · 건물

주택부터 상가(비즈니스)까지, 보험 약관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한인 공인보험조정사가 함께 찾아 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 갑작스러운 피해로 보험 클레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 ✓ 보험사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시는 분
- ✓ 어떤 항목까지 보상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
- ✓ 보험사와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
- ✓ 상가 피해로 영업 차질이나 손실이 발생한 사업주
- ✓ 기존 클레임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원하시는 분

대표 사고 유형

- 누수·물 피해
- 화재·연기 피해
- 폭풍·나무 전도
- 기계·장비 고장 (Equipment Breakdown)
- 영업 중단 손실 (Business Interruption)
- 동파·배관 파손
- 도난·파손
- 냉장·냉동 장비 고장

무료 상담 제공

- Licensed Public Adjuster
- 주택 · 상가 · 비즈니스 보험 클레임 전문
- MD · VA · DC · PA · NJ · TN 라이선스 보유

보험사는 보험사의 기준으로 클레임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바른길 보험조정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 약관을 검토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편”이 되어 끝까지 함께 합니다.

바른길 보험조정사

Right Path Solutions, LLC

☎ 240-659-9286

Publicadjuster.kim@gmail.com

https://rightpathllc.github.io/Website/korean.html

대표 김민영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 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박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EU ‘슈퍼화요일’…우크라 등 4개국과 가입협상 동시 진척

‘몸집 불리기’ 속도 내는 EU…“신규 회원 가입 있어 큰 진전”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등 EU 신규 후보 4개국과의 가입 협상을 한꺼번에 진척시키며 ‘몸집 키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이날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안보와 국방, 외교정책 등을 포괄하는 두 번째 협상 클러스터(단계)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

EU는 지난 달 15일 두 나라와 법치주의, 사법 개혁, 공공행정 기준 등을 다루는 가입 협상의 첫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약 1개월 만에 두 번째 단계에 착수하게 됐다.

2022년 정식 후보국이 됐으나 이후 지지부진하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은 친(親)러시아 성향의 오르반 비토르 전 헝가리 총리가 지난 4월 헝가리 총선을 계기로 실각하면서 돌고꾸를 찾았다.

다만,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EU에 가입하

길 원하는 우크라이나는 당초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6개 클러스터 모두에서 협상을 개시하길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EU는 아울러 이날 EU 합류에 가장 근접한 두 국가로 평가되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와는 일부 협상 ‘챕터’를 마무리함으로써 가입 협상을 또 한 단계 진전시켰다. 몬테네그로는 EU와의 가입 협상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 EU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EU 가입 후보국은 법치, 안보, 환경, 농업 등 6개의 주제별 클러스터(무음), 35개의 협상 챕터를 EU와 협의해 EU의 기준에 자국의 법과 제도를 맞추어야 한다.

이처럼 4개국이 가입 협상에 진전을 이룬 것은 근래 들어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EU로서는 14일이 신규 회원국 가입에 있어 최근



휘날리는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수년 내 가장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룬 날이라고 평가했다.

마르타 코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 “오늘은 EU 확대 정책에 있어 ‘슈퍼 화요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오늘의 모멘텀을 현장에서의 실

제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 집행위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가입 협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네 나라 모두가 하루 만에 큰 진전을 이뤘다. 이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EU 확대의 추진력은 점점 강

해지고 있고, 이제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가 머지않아 EU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국들이 EU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 노력을 지속한다면, EU 집행위원회 역시 이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27개 회원국으로 몸집이 줄어든 EU는 현재 우크라이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조지아, 튀르키예 등 9개국을 정식 가입 후보국으로 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래된 글로벌 안보 격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시작된 무역 전쟁 등 혼란에 경제와 안보 ‘우산’의 필요성 커짐에 따라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EU 가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파리 인근 숲 산불로 여의도 면적 7배 소실

용의자 2명 체포

폭염·산불에 기차 취소·지연

프랑스 수도권의 퐁텐블로 숲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오후 발생한 산불로 14일 낮 현재까지 총 2천50ha가 소실됐다고 지역 당국이 밝혔다.

퐁텐블로 숲을 관할하는 센에마른 지역 행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산불 피해 규모를 밝혔다. BFM TV가 전했다.

피에르 오리 행정관은 12일 발생한 첫 번째 화재로 약 1천600ha가 소실됐으며 13일 오후 시작된 두 번째 불로 450ha가 추가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오리 행정관은 800명 이상의 소방관이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 중이며 산불 진화용 수륙양용 항공기 4대, 대형 산불 진화기 1대, 소방 헬기 2대가 작업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날씨가 다소 호전됐다. 그간 무질서하게 불어오던 바람이 잔잔해졌다”며 “목표는 오늘 중 두 곳의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그러나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에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오리 행정관은 이번 산불에 따른 인명 피해는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퐁텐블로 숲 화재

[EPA=연합뉴스]

전날 산불이 확산하면서 숲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캠핑장 이용객 등 약 1천명은 예방적으로 대피했다. 숲 인근 승마센터 내 말 수습 필드 긴급 대피시켰다.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전날 저녁 퐁텐블로 숲의 1차 화재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1천m 반경 내에서 10여 곳의 발화 지점이 발견됐다”며 이번 화재가 “고의로 일으킨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과 폭염에 파리 리옹 지역의 출발·도착 열차 운행은 14일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

프랑스 남동부 리옹, 그르노블, 스

위스 로잔에서 출발해 파리 리옹역으로 향하는 여러 열차가 취소됐으며 이날 오전에만 약 10편의 열차 운행이 최소 5분~최대 2시간 30분 지연되기도 했다.

파리와 남동부 리옹을 잇는 6번 고속도로는 12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퐁텐블로 숲 인근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교통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도 차량 통행이 통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당국은 퐁텐블로 숲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공기 중 부유 입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야외 신체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웅본색’ 홍콩 영화계 대모 시남생 별세

전 남편 서극 감독 등

영화계 애도 이어져

성룡 “전설적인 인물 잃었다”

‘영웅본색’과 ‘무간도’ 등을 성공시키며 1990년대 홍콩 영화 붐을 이끈 프로듀서 시남생(施南生·중국명 스난성)이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5세.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남생은 지난 13일 오후 8시 51분께 홍콩 새너토리엄 병원에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홍콩의 유명한 감독이자 고인의 전 남편인 쉬커(徐克·서극)는 시남생이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쉬커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하게 버텼다”라면서 “그동안 모두가 보내준 보살핌과 축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쉬커와 시남생이 공동 설립한 회사인 필름워크숍 측은 고인이 면역체계 관련 합병증으로 2022년부터 건강이 악화했으며 최근 몇 달 새 반복된 감염을 겪었다고 밝혔다. 고인이 제작하거나 배급한 영화에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천녀유혼’ 시리즈와 ‘황비홍’ 시리즈, ‘무간도’ 등이 있다.

서극과 함께 필름워크숍을 통해 ‘동방불패’와 ‘영웅본색’ 등 홍콩 영화의



홍콩 영화 대모 시남생 별세

[SCMP 캡처]

전성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화권 영화계 스타들과 홍콩 문화 인사들은 애도를 표했다.

홍콩의 액션 스타 성룡(成龍·중국명 청룽)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영화계가) 또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을 잃었다”라면서 “사람들은 고전이 된 작품들 뒤에 있던 그의 용기와 강인한 성품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1951년 홍콩에서 태어난 시남생은 영국 노스윈턴 폴리테크닉에서 통계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했다.

1970년대에 홍콩으로 돌아온 그는 방송업계에서 일하다가 1981년 영화사 시네마시티에 총괄이사로 합류하면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곳에서 행정과 기획, 배급 등을 총괄하며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1984년 필름워크숍을 설립한 뒤 홍콩 영화의 해외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홍콩 영화계의 대모’로 불렸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상가품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환영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s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HANS TRAVEL

TALK hanstravelusa Hans Travel 친구 추가! 실시간 상담 가능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항공사 공식 대리점 KOREAN AIR AIR PREMIA DELTA TURKISH AIRLINES

노동절 특선 로컬 버스 투어
베어 마운틴 & 허드슨벨리 브루어리 & 뉴욕
1박2일 9/6(일)-9/7(월)
\$399

노아의 방주
2박3일 9/5(토)-9/7(월)
\$750

캐나다 나이아가라 천심, 왓킨스글렌
2박3일 9/5(토)-9/7(월)
\$790

가을 단풍 여행
보스턴, 뉴포트 아카디아 국립공원
3박4일 10/8(목)-10/11(일)
랍스터 특식 포함
\$950
한스 대형버스

가득은 합리적으로, 여행의 품격은 높게
고품격 한국여행
출발날짜 문의 **교포연합**
각 도시 최고의 호텔과 맛여행
제주:신라호텔 / 부산:그랜드 조선호텔

노블 전국일주 9박10일(제주포함)
\$2,370 항공불포함
노블 내륙일주 6박7일
\$1,730 항공불포함
K-NOBLE 고국내륙 영어가이드 투어 8박9일
\$2,550 항공불포함

한국 가는 길에~ 일본여행
출발날짜 문의 **교포연합**
동경 3박4일 \$1,300 항공불포함
동경오사카 5박6일 \$2,060 항공불포함
오사카 후쿠오카 6박7일 \$2,200 항공불포함
일본일주 8박9일 \$3,000 항공불포함

2027 코스타리카 골프 투어 5박6일
1/18(월)-1/23(토)
\$2,490 **항공포함** 인솔자:세라정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돌로미테
8박9일 9/17(목)-9/25(금)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오스트리아, 체코 클래식 감성여행
10박11일 10/7(수)-10/17(토)
\$6,5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스페셜 기획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10/12(월)-10/23(금)
\$3,7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전일정 딜럭스 호텔숙박,
알가르베의 베냐길 동굴 포함한 명품 일주여행.

알프스 가을 단풍 파노라마 기차여행
9박10일 10/18(일)-10/27(화)
\$5,50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10/26(월)-11/7(토)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11/10(화)-11/19(목)
\$4,190 항공불포함 인솔자:데이빗 한

AIR PREMIA GOLDEN AGE PROMOTION
✓ 한국 왕복 항공권 15~20%할인
발급 기한 : 7월31일
✓ 시니어 디스카운트 최대 15% 프로모션
BIG SALE (발권일 7월19일까지)
✓ 한국, 동남아, 일본 더 편한 이코노미 좌석으로!
WIDE PREMIUM(넓은 이코노미 좌석) 특별할인

한스 여행 스케줄
2026년 항공 불포함 **인솔자**
09/17(목)-09/25(금)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돌로미테 8박9일 \$3,590 **세라 정**
09/19(토)-09/27(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재키 조**
09/27(일)-10/10(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3개국 **마감** 10박11일 \$6,595 **NEW스페셜!! 재키 조**
10/07(수)-10/17(토) 오스트리아, 체코-클래식 감성여행 10박11일 \$6,595 **NEW스페셜!! 재키 조**
10/08(목)-10/17(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마감**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11박12일 \$3,790 **애나 김**
10/12(월)-10/24(토) 그리스 & 튀르키예 성지순례 **마감** 10/18(일)-10/27(화) 알프스 가을 파노라마 기차여행 9박10일 \$5,500 **재키 조**

2027년
10/26(월)-11/07(토)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9(목)-11/07(토) 튀르키예 9박10일 \$2,980
11/10(화)-11/19(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11/09(월)-11/21(토) 네팔 & 부탄 왕국 12박13일 \$5,690 **조앤 한**
12/05(토)-12/18(금) 하와이 뉴질랜드 시드니 여행 13박14일 \$6,790 **재키 조**
2027년
01/18(월)-01/23(토) 코스타리카 골프 투어 5박6일 \$2,490 **항공포함 세라 정**
01/11(목)-01/20(토) 파타고니아 9박10일 \$7,095 **재키 조**
02/07(일)-02/12(금) 코스타리카 5박6일 \$2,290 **항공포함 애나 김**
02/16(화)-02/25(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290 **데이빗 한**
03/15(월)-03/24(수) 모로코 & 사하라 사막 9박10일 \$3,690 **조앤 한**
03/29(월)-04/10(토) 일본 하이라이트 12박13일 \$5,995 **재키 조**
04/10(토)-04/17(토) 고국 하이라이트 7박8일 \$2,990
06/18(금)-06/26(토) 그리스 섬 + 몰타 크루즈 8박9일(크루즈7박8일) 오션뷰\$3,290 인사이드\$3,090

모바일
캐나다 록키 5박6일 **수시출발**
\$1,050부터 **항공불포함 더위 탈출~**
알래스카 5박7일 **월요일 출발**
\$1,650부터 **항공불포함 더위 탈출~**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3박4일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쉬모어/
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9/4(금) \$1,040 **항공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월/금 출발**
\$950 **항공불포함**
서부4대캐년 4박5일 **일요일 출발**
\$990 **항공불포함**
미서부 일주 7박8일 **일요일 출발**
\$1,540 **항공불포함**

모바일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7/20(월) \$650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우드버리아울렛-뉴욕
나이아가라 유람선,원월드 전망대,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포함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당 “투표포기 인원도 파악못해”…국힘 “선피아 카르텔”

국조특위 청문회서 선관위 질타 계속…“상황관리체계 무너져”
‘올공 집회’ 놓고 여야 충돌…“국힘, 정치적 이용” vs “국유로 몰고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후속 대응에도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다만, 여당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고 부정선거론 등 의심을 증폭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선(選)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지난해 말 예상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투표가 중단되고 혼란이 극심했던 시간대에 송파구선관위는 청사 밖에서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고 있었다”

며 “송파구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황 관리 체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나. 그런데도 선관위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아직 파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선관위에서는 투표를 못 한 인원이 22명이라고 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43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구로구에서 발생한 교육감 선거 개표 누락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개표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록은 누가 작성한 거냐. 선관위 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은 “개표에서 누락된 490여표를 자체 의결을 통해 개표하고 서울시선관위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며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개표 참관인 없이 한 개표는 유효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중앙이 시스템을 열어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기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의 A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이 총 103건, 175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던 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선거 용품 수의계약 업체의 경우 설립 1년 만에 19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확인된 자료로만 115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업체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도 4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119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현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지적에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 투표 당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 중앙선

관위를 향해 “(투표지) 공개됐고 고의성도 있는데 비밀투표 원칙에 대한 위법이 아니냐”며 “(이 대통령이 유효표냐고 물은) 사전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 특정인만 성역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구속영장…“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대면조사 서면으로 대체’ 지시 등 축소·은폐 의혹…직권남용 혐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관저 이전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진행됐으며,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된 A사의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18개 협력업체 중 15곳은 관련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은 감사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조사를 위해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유병호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감사원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

을 확인해 21그림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림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21그림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

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림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림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할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21그림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은 전날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21그림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상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근거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했고, 하도급 미승인 등 다른 행정 법규 위반 사항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비엔나 콘도

SOLD

\$339,000

방1 / 화1 Den,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스프링필드 타운홈

SOLD

\$645,000

방3 / 화2.55 / 차고1 /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한 로케이션

센터빌 타운홈

UNDER CONTRACT

\$595,000

방3 / 화3.5 / 2 Assigned.
지붕, 부엌(2024), P Bath (2026), HVAC 등등

클립턴 싱글홈

UNDER CONTRACT

\$1,120,000

방 4 / 화 3.5.
집 전체 수리 많이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UNIVERSAL

HEATINGAIR CONDITIONING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UNIVERSAL

HEATINGAIR CONDITIONING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국내증시 큰폭 조정 이달 시총 19% 증발…6천조원 위태

지난달 말보다 1천386조원 감소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만
940조원 넘게 감소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진 가운데 14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이달 들어 19% 가까이 줄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5천616조7천500억원과 440조3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시장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약 6천57조1천340억원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시총이 7천443조4천850억원이었다. 국내 증시에서 이달 들어서만 1천386조3천510억원, 즉 18.6%가 증발한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총 합은 지난달 22일 7천93조원대까지 오르며

8천조원에 코앞까지 다가가기도 했다.

다만 이후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지속되고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재고조되며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이달 들어 7천조원대를 등락하다 급기야 전날에는 6천21조원대까지 내렸다. 이날 장 중 한때 6천조원을 밑돌기도 했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시가총액이 이달 들어 총 940조원 넘게 감소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날 3.34% 오른 26만3천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약 1천538조원으로 집계돼, 지난달 말 1천953조원에서 21% 감소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일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천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같은 달 18일 36만2천500원으로 역대



전날 급락 이어 코스피1~2%대 하락 출발 [연합뉴스]

최고 증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은 2천119조원대까지 커졌다.

이후 시가총액은 2천조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에는 줄곧 2천조원을 밑돌고 있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속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도 함께 쪼그라든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3.69% 오른 191만3천원으로 장을 종료했다.

시가총액은 1천363조원으로 지난달 말 1천889조원에서 약 28% 줄어든 상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처음으로 시가

총액 2천조원을 돌파했다. 증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2일 처음 2천조원을 넘어선 뒤 잠시 이를 밑돌았으며, 같은 달 25일 다시 2천조원을 회복했다. 다만 이후로는 대체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장 마감 시점 기준으로 미국 시가총액 조사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닷컴(companiesmarketcap.com)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8천689억 달러로 집계하면서, SK하이닉스는 ‘1조 달러 클럽’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비슷하다. SK스퀘어[402340]의 시가총액은 전날 약 224조원에서 현재 157조원으로 30%, 삼성전기[009150]는 163조원에서 94조원으로 42% 감소했다.

현대차[005380]는 101조원에서 87조원으로 14%,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85조원에서 75조원으로 11% 넘게 내렸다.

러 경유 수출금지…K정유 공급 확대 기대

우크라 공습 경유까지 수출 금지
5위 정제능력 한국 역할 주목
원유 확보·국내 수급 안정 병행

에너지 인프라를 노린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타격을 받은 세계 2위 경유(디젤) 수출국 러시아가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이 확대되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러시아산 경유 공급 감소에 더해 중동 전쟁으로 파괴된 정제시설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재점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계 5위의 정제 능력을 보유한 한국이 석유제품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1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일 국내 공급 위기를 들어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 내륙 깊숙이 있는 주요 정유시설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본 데다 여름철 연료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 부족이 심화하자 휘발유·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세계 2위 수출국의 경유 수출 중단 소식에 글로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미국 경유 제품 마진은 지난달 26일 배럴당 62.84달러에서 러시아 경유 수출 금지 발표 직후인 지난 8일 기준 80



국내 정유시설 [GS칼텍스 제공]

달러를 돌파했다. 유럽 경유 제품 마진은 지난달 말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잠시 낮아졌다가 이달 들어 다시 60달러를 웃도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내 정유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대비 경유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유 제품 마진은 10일 기준 55.1달러로 이틀 사이 5.2달러 올랐다.

각종 악재로 글로벌 석유 제품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주요 정유국들은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재고를 줄이면서까지 경유와 휘발유·항공유 수출을 크게 늘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경유 등 중간 유분 재고는 이달 초 기준 수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감소

했고, 휘발유 재고도 최근 수년간 같은 기간 기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도 이달 들어 석유제품 수출 확대 기조로 전환해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정유사의 수출도 재개했다. 중국은 중동 전쟁 이후인 지난 3월부터 정유사 신규 수출 계약 중단, 기존 계약 취소 검토 등으로 사실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해 왔다.

정유업계는 한국 역시 미국·중국 등과 함께 러시아 수출 금지와 중동 정제설비 보수 지연에 따른 글로벌 제품 수급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하루 약 320만배럴의 정제 능력을 보유한 세계 5위 수준의 정제국으로,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역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가장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한국무역협회(KITA)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와 주요 경제단체, 협회 회원사, 주한대사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KITA 80, 세상의 모든 시장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1946년 105개 회원사로 출범해 현재 8만 회원사와 함께 하는 협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회원사와 무역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는 아울러 창립 8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민간 통상 네트워크를 더 공고히 해 통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산된 무역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무역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전자무역 표준과 연계를 확대해 원활한 무역 환경을 구현한다.

코엑스를 삼성동과 잠실을 잇는 ‘메가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플랫폼’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해당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80년간 정부, 무역업계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만큼 앞으로 더 큰 책임과 기여로 보답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도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기업들이 세상의 모든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개회사하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연합뉴스]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검찰 이어 경찰도 ‘장윤기 사건’ 광산서장·형사과장 입건

특별수사단, 의사결정 과정서
영향력 행사 정황 포착

수사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입건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당시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구속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의 검거·구속·검찰 송

치까지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관여한 이들이 수사 과정의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주요 부위가 훼손된 상태의 리얼돌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고,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한 배경에 이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C 경감이 수사팀원들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C 경감은 조사에서 당시 서장에게 수사 사항을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무관도 수사 보고는 B 경정을 통해 이뤄졌을 뿐 C 경감을 대면한 적은 없다는 입장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마친 특별수사팀

[연합뉴스]

이어서 특별수사단은 보고와 지휘 계통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이지만, 지난 8일 구속된 C 경감은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과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도 수사 지휘 라인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광산경찰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A 경무관, B 경정을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전날에는 B 경정을 소환 조사했으며, C 경감이 송치돼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으면 관련 혐의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증거 인멸·유착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천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놔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임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불발됐다.

결국 마지막 최종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 안이 11표, 사용자 안이 15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영향률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근로자 수를 예측한 비율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날 결과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는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 법원 “손해 예방 필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

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4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에서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집행정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본안 소송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흘여간 폭염 지속 서울서 어제 온열질환자 11명 속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소	금액	설명
11893 Benton Lake Rd, Bristow, VA	\$689K	Victory 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 된 터운하우스, 교통/생활 편리. 6/25일 마켓에 올라올 예정
2905 Bleeker St #4-304, Fairfax, VA	\$675K	셀러/바이어 서로 좋은 조건으로 합의 계약. Everybody Happy 7/15 세팅먼트 예정
13511 Lavender Mist Ln, Centreville, VA	\$675K	투자용 집으로 구매. 1031 Exchange Program 으로 같이할. 7/6 세팅먼트 예정
13343 Connor Dr, Centreville, VA	\$425K	Stone Gate at Faircrest 콘도. 방 2, 차고 1, 3층 타워형 콘도. 학군(클린 파월 초등) 좋고, 교통, 생활 편리. 6/30 세팅먼트 예정
10003 Donal Ln, Vienna, VA	\$1.4M	손님이 너무나 원하던 동네. 6개의 경쟁 오퍼 받고 \$3K 차이로 득템. Buyer So Happy. 6/30 세팅먼트 예정
6505 Orland St, Falls Church, VA	\$1.275M	Haycock 초/롱펠로우 중/맥클린 하이, 경쟁 오퍼 받고 득템. 바이어 아이들이 완전 해피. 6/22 세팅먼트 예정
9902 Michael Schar Ct, Vienna, VA	\$835K	투자용 집으로 구매. 한국에서 나오는 주재원 렌트 농을 예정 6/18 세팅먼트 예정
11423 Abner Way, Fairfax, VA		5개의 경쟁오퍼 받고 득템. Buyer So Happy 6/12 세팅먼트 완료

갤럭시부동산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파던 나을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농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7월 ~ 12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2233 N Underwood St, Falls Church, VA	7/1 입주가능	\$10,000 2020년에 새로 지은 싱글 홈. Haycock ES - Longfellow MS - McLean HS
6615 Anthony Crest Sq, McLean, VA	8/15 입주예정	\$5,500 환상적인 집. 5개 신청서 중에서 Lori 손님 선택, 주재원 2년
74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7/1 입주예정	주재원 3년, 하루의 공실없이 주재원 연결
1968 Hopewood Dr, Falls Church, VA	6/16 입주예정	주재원 2년
7019 Alicent Pl, McLean, VA	7/5 입주예정	주재원 3년
2726 Gallows Rd, Vienna, VA	6/25 입주예정	주재원 2년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20120		사랑하는 우리 교민, 2년

직통 703-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줄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외국 함장도 “배 진짜 잘 만든다”...림팩서 빛난 ‘K-방산’

“한국이 만든 배는 매우 뛰어납니다. 정말 잘 만든 배입니다”

7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 중인 필리핀 3천200t급 최신호 호위함 ‘미겔말바르함’에서 만난 폴 마이클 헤차노바 함장(필리핀 해군 대령)의 평가다.

미겔말바르함은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필리핀을 대표해 참가했다.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메이드인코리아’, 한국에서 건조된 함정이라는 점.

이날 진주만에 림팩 훈련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함정 30여척이 정박 중이었는데, 가까이서 본 미겔말바르함은 함수 배치나 함미 구조, 함교의 형태, 격납고까지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똑 빼닮은 모습이였다.

특히 림팩에 참가한 대한민국 해군 3천100t급 호위함 대전함(FFG)과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외형이 비슷했다.

함정 내부로 들어가 보니 최신에 함정답게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이었다. 함정의 각 시설을 제어하는 기관조종실은 최신 전자식 설비로 자동화·디지털화돼 있었고, 이곳저곳에선 한국어 도 눈에 띄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겔말바르함은 지난해 5월 취역해 필리핀에서 임무를 개시했다. 길이 118.4m, 폭 14.9m 규모로, 대공·대함·대잠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필리핀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다. 필리핀 해군은 이 최신에 함정에 필리핀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민적 영웅인 미겔 말바르의 이름을 따 함명을 부여했다.

헤차노바 함장은 이 함정의 초대 함장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미겔말바르함을 이끌고 있다. 과거 한국의 합동군사대학에서 해군 교리를 공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년간 함정을 운용했는데, 군함의 건조 상태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며 “필리핀 해군의 요구 사항들이 완벽하게 반영됐다. 내항성과 복원성이 아주 좋고,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호평했다.

이어 “특히 건조 일정 관리가 매우 철저했다. 약속을 지키는 철저한 납기 능력이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한국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 외에도 이런 실무적인 강점들이 결합해 한국을 선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도입하며 한국산 무기를 해군의 차기 주력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작년 12월 필리핀은 한국과 3천200t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진주만에서 만난 ‘메이드인코리아’ 함정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뉴질랜드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아오테아로아함’ 역시 한국 조선소가 건조한 함정이다.

아오테아로아함은 길이 173m, 너비 24m, 2만6천t급 대형 군수지원함으로, 뉴질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 함정이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0년 뉴질랜드에 인도했다.

아오테아로아함은 단순히 물자 보급뿐만 아니라 해상급유, 해상수송 등 다국적 연합 작전에서 중추적인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남극 등 극한 환경 속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내빙·방한 성능을 갖춘 것이 강점이다.

‘해군의 올림픽’으로도 불리는 림팩 훈련은 세계 각국의 첨단 해군 전력의 각축장으로, 각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동시에 해군력을 보여주는 행사다.

림팩 훈련에서 각국은 서로의 함정을 오가며 군사교류 및 친선활동도 벌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진주만-히람 합동기지서 열린 환태평양훈련(RIMPAC) 함정공개의 날에 방문객들이 대한민국해군의 최신호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 8,200톤급)을 견학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 제공]

필리핀·뉴질랜드 참가 함정은 ‘메이드인코리아’

“성능 매우 뛰어나” 만족

첨단 해군전력 각축장 림팩서 K-방산 주목

정조대왕함·도산안창호함 문전성시

이는데, 한국에서 참가한 8천200t급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과 3천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등 최신에 해군 전력에 대한 외국 장병들의 관심이 유독 컸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30개 훈련 참가국 가운데 이지스구축함이 참가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4곳뿐이며, 잠수함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 페루 4곳만이 참가했다.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이 모두 참가한 나라는 주최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뿐이다.

정조대왕함 승조원인 김진영 중사는

“림팩훈련이 시작하고 오늘까지 정조대왕함을 다녀간 방문객이 2천900여명 수준”이라며 “외국군을 포함해 방문객 대부분이 ‘대단하고 멋진 함정이다. 어제 만들어진 새 배 같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캐나다 차기잠수함 획득 사업에서 독일과 함께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한국 잠수함에 대한 외국군의 관심도 뜨거웠다고 한다.

실제로 도산안창호함에는 림팩 훈련에 참가한 캐나다, 페루 등 외국군 다수가 방문했으며, 넓은 내부 공간과 뛰어난 잠수함 성능을 극찬했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비록 림팩 기간 중이던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기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비보가 전해졌지만, 이와 별개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과 림팩 훈련을 통해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림팩 훈련부대장인 김인호 소장은 “림팩 훈련 현장은 각국 해군의 친선의 장이자 방산 세일즈의 장”이라며 “국내에서 건조한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3천t급 잠수함, 상륙함에 세계 각국의 해군이 찾고 있는 만큼, 우리 함정의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1 ‘한국 건조’ 필리핀 최신호 호위함 미겔말바르함. 2 ‘한국 건조’ 뉴질랜드 최대 함정 아오테아로아함. 3 하와이 진주만-히람 합동기지서 열린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한 도산안창호함의 모습. 대한민국 림팩훈련부대는 이달 6일까지 정박훈련을 실시하고, 이달 7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출항, 해상훈련에 돌입해 대함전·대공전·대잠전·자유공방전 훈련 등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촬영 김철선, 연합뉴스]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Eng/Kor) (구원뱀뱀)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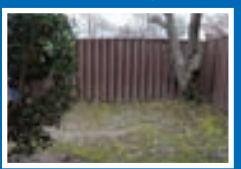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집 예쁘게 수리해서 더 빨리, 더 좋은 가격에 팔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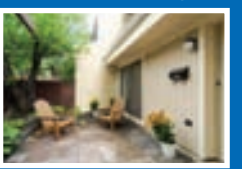
실제 사례 광고 **레스톤 타운홈** 2018년 3월 \$270,000 구입, 2026년 6월 \$457,500 매매

2018년 구매시 앞마당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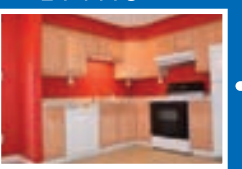
BEFORE

2026년 6월 매매시 앞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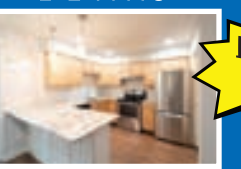
AFTER

2018년 구매시 주방



BEFORE

2026년 6월 매매시 주방



AFTER

**수리 + 판매를
한 땀에!**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감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세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전면 벽돌,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멋진 경치, 넓은 부엌과 거실,
나무 마루, 넓은 안방과 화장실,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넓은 DECK, FENCE 있는 뒷마당, 많은 VISITOR PARKING 공간, AS IS CONDITION

\$739,000



독점 Woodbridge 콘도

예쁘게 업데이트한 콘도, 새 페인트, 새 카펫,
세탁기 및 건조기 집안에 있음, 밝고 환한 콘도,
계단 없는 뒷뜰 출입 가능, 리모델링한 화장실,
리모델링한 부엌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 저렴한 콘도 Fee

\$229,900



Contract

독점 Falls Church 콘도

방1, 화1, 완전히 예쁘게 리모델링한 콘도,
최고급 자체 사용, 최신식 부엌과 주방용품,
리조트한 나무마루, 넓은 거실, 업그레이드한 화장실,
넓은 발코니

\$184,900



독점 Annandale 오피스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28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음곡로

나이는 숫자일 뿐

직전 월드컵 축구대회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최고 스타는 아르헨티나를 36년 만에 정상으로 견인한 리오넬 메시였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지만, 당시 이미 30대 중반 노장으로 큰 기대를 받기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 이전에 체력과 기량이 절정이던 시절 4차례나 월드컵에 나왔어도 우승컵과 인연이 없었는데, 노쇠한 그가 뭘 하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메시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아르헨티나 공격을 사실상 혼자 조율하며 고비마다 결정적 활약을 해 영화 같은 우승을 완성했다. 대회 기간 무려 7골을 터뜨리고 도움도 3개나 기록하며 골든볼(최우수선수상)까지 받았다. 월드컵 역사상 전무후무한 통산 2회 골든볼 수상자가 나오는 순간이었다. 축구 팬들은 조카뻘 선수들을 ‘형님 리더십’으로 이끌며 위업을 달성한 메시가 축구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뒀다며 찬양했다.

그 장면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자 더할 나
위 없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여겼던 팬들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경이로운 드라마를 시청 중이다. 거의 마흔 살인 메시가 대표팀에 또 합류한 것만도 놀라운데, '벤치 리드'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풀타임을 뛰며 실제 경기를 지배하고 있다. 축구선수로는 한참 넘은 노인 취급을 받아야 할 물리적 나이인데도, 세월의 무게조차 메시에게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오히려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지난 대회보다도 더 화려하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아닐까. 벌써 8골을 터뜨리며 득점왕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자신이 보유한 월드컵 통산 최다 경기 출전, 최다 득점, 최다 공격포인트, 최다 경기 연속골, 최다 경기 득점 기록도 거둬들인 중이다. 특히 이집트와 16강전은 메시가 왜 ‘신’인지 증명할 무대였다.

두 골 차 뒤져 패색이 짙던 후반 막판 1골 1도움을 몰아치며 기적 같은 대역전극을 이끌었다.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지만, 만화도 이렇게 그리면 너무 진부한 영웅담이란 말을 들을 것 같다.

메시는 이제 단순히 축구 영웅을 뛰어넘어 ‘중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스타미나가 중요한 축구에서 40대에 접어드는 그가 20대 청년들과 몸을 부딪치며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삶에 지친 중년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 중년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야 할 때이지만, 서서히 체력은 떨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메시는 ‘나이는 숫자일 뿐’임을 보란 듯 몸소 입증하고 있다. 이집트전 역전승 이후 아이처럼 엉엉 울던 그의 순수한 모습은 고단한 중년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이제 세계 각국의 중년들은 국적, 인종, 성별 등과 상관없이 메시의 라스트 댄스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어쩌면 이번 월드컵 최대 관심사는 우승팀이 어디가 되느냐보다, 메시의 인간 극장이 어떻게 막을 내리느냐에 쏠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돈과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저 축구를 사랑하기에 힘들어도 뭇 뿐이라는 메시의 아름다운 도전에 갈채를 보낸다.

이런말저런글

‘기라성 같다’ 말의 뿌리

‘이번 월드컵에도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다
수 출전했다’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좋은
선수가 기라성같이 많다’ ‘각 분야 전문가
가 기라성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밤하늘
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 기라성(綺羅星,
きらぼし, 기라보시)이다. 신분이 높거나 권
력이나 명예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
여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전
은 기라성에 대해 이렇게 부연한다.

이 말, 조어 형태가 별나다. ‘반짝반짝’이 일본말로 ‘きらきら(기라기라)’다. 한자 기라(綺羅)를 빌려 쓰고 ‘별 성(星)’까지 붙였다. ‘반짝별’ 꼴이다. 국립국어원이 일본어 투라며 ‘빛나는 별’로 다듬은 이유다. 순화한 게 1997년인데 지금껏 기라성을 대체하지 못했다. ‘빛나는 별’은 빛나지 않는다. 사전이 기라성을 표제어로 올려 친절하게 설명한 까닭을 알겠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라성, 기라성 한다.

그게 안타까웠던 것일까. 국어책 『당신은 우리말을 모른다(문법편)』는 ‘내로라하다’ ‘한가락 하다’를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라성 같은 선수란 내로라하는 선수이며, 한가락 하는 선수라는 것이 낫겠다. 제 나라 말로 제 생각을 다 펼칠 수 없는 일본말의 한계 속에서 태어난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한중일 언어 관련성이 새삼스럽다. 기라성만 해도 그렇다. 성(星)은 중일, 별은 한일의 관련성을 보인다. 일본말로 별은 원래 ほし(호시)다. 모음 ‘i’가 ‘u’로 변천하여 불이 된다. 불의 입술소리(h)는 일본말에서 목구멍소리(ㅎ)로 읽힌다. 받침 ‘ㄷ’은 일본말 ‘ㄸ’으로 반영되기 마련이니까 불은 ほち(호치)가 되고 ㅅㅅㅈ → 스의 변화를 거쳐 ‘호시’가 이른다. 무관할 것 같아는 별과 호치의 관련성이다. 비슷한 이치로 된 짝이 더 있다. 벌(쏘는 벌)과 하치(はち. 蜂 벌)도 그중 하나다. 고형규 기자

고형규 기자

세상만사

존 애덤스-토머스 제퍼슨의 편지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50주년 기념일 아침. 91세의 존 애덤스가 매사추세츠 자택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토머스 제퍼슨은 아직 살아있는 데...’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렇게 제2대 대통령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애덤스가 그 이름을 부르던 바로 그 시각, 버지니아의 몬티첼로 저택에서 제퍼슨은 이미 몇 시간 전 세상을 떠난 뒤였다. 건국의 두 아버지는 같은 날, 독립기념일에, 나란히 눈을 감았다. 정확히 독립선언 50년 후에.

역사는 때로 이렇게 지나치게 극적이다. 그러나 이 장면이 감동적인 것은 낱씨의 우연 때문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걸은 길이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기 때문이다. 애덤스와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함께 만든 동지였다.

그러나 건국 이후 두 사람의 길이 같았다. 애덤스는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제퍼슨은 결사반대했다.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오늘날로 치면 공화당과 민주당만큼이나 다른 세계관이었다.

아이리시는 당시 헌법 구조에서 터졌다. 대선에서 1위가 대통령, 2위가 자동으로 부통령이 되는 규정 탓에, 대통령 애덤스와 부통령 제퍼슨이라는 희한한 조합이 탄생했다. 정치적으로 정반대인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4년을 버텨야 했다. 그러니 갈등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후 1800년 대선에서 제퍼슨이 애덤스를 꺾고

3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애덤스는 그의 취임식에도 나타나지 않고 새벽에 짐을 싸 고향으로 가버렸다. 미국 역사상 전임 대통령이 후임자 취임식에 불참한 첫 번째 사례였다.

그리고 이 불편한 동거의 경험은 결국 헌법을 바꾸게 했다. 1804년 수정헌법 12조가 통과되어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투표하되, 같은 당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오늘날의 방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이 제도를 진화시킨 셈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애덤스였다.

1812년 새해 첫날, 그가 먼저 편지를 보냈다. 명
분은 소박했다. 그저 오래된 벗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는 것.

그러자 제퍼슨도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시작된 편지는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58통이나 이어졌다.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 독립혁명을 회고했고, 철학을 논했으며 서로의 건강을 걱정했다.

서로 다른 신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역사가 판단한 영역이었을 뿐 두 사람이 나누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내면서 공유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가 오간 뒤 두 사람은 같은 날 눈을 감았다.

제퍼슨은 죽기 전 스스로 묘비명을 정했다. ‘독

립선언문과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기초자,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 여기 잠들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다는 말은 한 줄도 없었다. 권력이 아니라, 자신이 쓴 문장과 세운 학교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문장 중 하나가 바로 독립선언서의 핵심이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양숙과 화해하고, 권력보다는 문장을 택하고, 라이벌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둔 두 사람, 그들이 살았던 방식이 어쩌면 미국 민주주의가 250년을 버텨온 진짜 이유였는지 모른다.

2026년, 미국은 독립 250주년을 맞았다. 오늘의 미국은 어떤가.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현실을 살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에담스와 제퍼슨도 세계관이 달랐고, 권력을 두고 다투고, 오랫동안 등을 돌렸다. 하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끝내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 250주년을 맞는
오늘의 어두운 그늘이다.

250년 전 독립을 선언한 나라는 완성된 민주주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었다. 갈등을 품고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다. 애덤스가 먼저 편지를 쓴 것처럼 그 약속은 언제나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된다. 해서 그 편지 한 통이, 그 문장 하나가 250년을 버텨 왔을 것이다.

1. COMING SOON Fairfax 타운 방3, 화 3.5 \$849,000 Annapdale 싱글 방 3, 화2 \$649,000	4.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 \$379,000  방2, 화2, 콜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 중심	7. 빌더 새집 구매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2. 매나샤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2. 애쉬번 럭셔리 타운 \$929,000  3,660sqft, 2015, 방 4, 화 3.5, 차고 2, 최고 학군 Rock Ridge HS, RT 50/66/267, 밀러스공방, 교통유지	5. 캔틀리 하이 싱글 \$1,379,000  방5, 화4.5, 차고2, 콘택, 최고 학군, 잘 관리 된 집 새 지붕 (2018), HVAC 교체, 실내 새 페인트, 주방 가전 업데이트,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로,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3. 애난데일 싱글 \$720,000  애난데일 중심, 방3, 화2, 0.23acre 넓은 마당/창고, 교통편리, 생활 편의시설, 495/95/Backlick Rd	6.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샤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9. 알디 싱글 \$869,000  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시대의 풍운아...보수의 거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별이 되다

‘흙수저’ 군 법무관에서 워싱턴 정계의 중심축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

[로이터]

지난 11일 저녁, 워싱턴 정가와 미국 보수 진영의 중심축을 지탱해 온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 향년 71세로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공중과 방송이 생방송으로 속보를 내보낼 만큼 다급한 뉴스였다.

중간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전해진 그의 비보는 워싱턴 정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회를 지켜온 그레이엄 의원은 강력한 대외 군사 개입을 주장하는 전통적 대외 동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막후 조력자이자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실질적 선봉장 역할을 해온 보수 진영의 거목이었다.

워싱턴 정가를 가장 큰 혼란에 빠뜨린 것은 그가 숨지기 직전까지 보여준 왕성한 행보와 그에 따른 급작스러운 사망 경위다. 그레이엄 의원은 숨지기 바로 전날까지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주하며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조강령 경제 제재 법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귀국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조금 피곤하다”고 했을 뿐 건강상에 아무런 징후가 없었던 그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와 소셜 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그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음모론이 겹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특히 러시아가 공공연하게 적대시해 온 대표적 매과 정치인이 키이우 방문 직후 사망했다는 점, 그리고 의원실의 최초 발표가 구체적인 사인 없이 “짧고 갑작스러운 발병”으로만 뭉뚱그려졌다는 점이 의구심을 키웠다. 국회의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불투명한 공개 관행이 도마 위에 오

르며 의혹이 증폭되자, 워싱턴 DC 부검의 사무소는 서둘러 정밀 부검의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종 사인은 오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유발한 급성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로 판명되며 타살 의혹 등은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치 거물이 이란이 공공연한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복수와 암살을 언급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직후 급사한 타이밍은 여전히 정계에 묘한 파장을 남기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의 유년 시절은 불우했다. 195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센트럴의 작은 마을에서 당구장과 간식당을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레이엄 의원은 전형적인 블루칼라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했으나 재학 중 부모를 연이어 여의는 극심한 시련도 겪었다.

그러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JAG)으로 임관해 6년 반 동안 현역으로 복무했다. 이후 예비역으로 전환된 뒤에도 걸프전 등에 소집되는 등 군과의 인연을 이어갔고, 2015년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총 33년간 군적을 유지했다.

그의 정치 인생은 1992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의원으로 시작됐다. 이어 1994년 공화당의 역사적 압승 속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날카로운 소추위원으로 활약하며 전국구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2002년에는 대선해 스톨름 서먼드 의원의 은퇴로 비어 있는 자리에 출마해 상원에 입성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존 매케인, 조 리버맨 상원의원과 함께 ‘스리 아미고스(Three Amigos)’를

결성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등 초강경 매과 외교를 이끌었다.

그레이엄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논쟁적인 대목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 변화다. 2015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그레이엄 의원은 당시 트럼프 후보를 향해 “종교적 편견을 가진 선동가”, “자격 미달”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트럼프 역시 대중 앞에서 그레이엄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조롱으로 맞섰다.

그러나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자 그레이엄은 태도를 급선회했다. 단순한 옹호자를 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와 보수 세력을 장악하고 강력한 MAGA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실질적인 전략가이자 사령관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상원 법사위원장 시절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브레트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 연방 대법관들의 인준을 밀어붙여 미국 사법부의 역사적 보수화를 이끌었다. 이는 훗날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 등 역사적인 보수 우위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 초석이 됐다. 또한 두 차례의 탄핵 정국 당시 상원에서 탄핵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도맡았다. 린지 그레이엄이 세계사에 남긴 족적은 미국 국내 정치를 넘어 전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외 정책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 매과’ 외교의 마지막 설계자였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지했으며, 테러와의 전쟁 전면에 서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주의가 세계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그는 중동 정세의 핵심 축인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다. 이스라엘 안보를 미국의 국가 이익과 동치시키며 중동 내 친미 동맹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최근까지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중동의 세력 균형을 긴장 속에 유지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자처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유산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은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공화당 내 MAGA 강경파들이 고립주의 노선을 택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 때, 그레이엄은 트럼프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자신의 특수한 지위를 활용해 당내 반대를 무마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전쟁 발발 이후 무려 10차례나 키이우를 방문할 만큼 대러시아 전선의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신념은 서방 세계가 결속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사망 직전 동료 의원들과 합의한 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은 그가 세계 보수 외교사에 남긴 마지막 친필 사인이 되었다.

비판론자들은 그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기회주의자라 부르기도 했으나, 정계 전문가들은 그를 철저하게 권력의 생리를 이해하는 실용주의적 제도권 정객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그는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공화당 내 고립주의 성향의 강경파들과 차별화를 두며 전통적인 공화당의 개입주의 외교 노선을 끝까지 지켜냈다. 생전 그는 “트럼프에게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를 돕는 것이 나라를 돕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에 나는 그와 함께 갈 것”이라며 자신의 선택을 당당히 옹호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보를 접한 후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자 진

정한 애국자가 세상을 떠났다”며 깊은 슬픔을 표했고, 백악관을 비롯한 전 미국의 주요 관공서에는 조기가 게양됐다. 그의 빈자리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지명에 따라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이 임시로 승계하게 되며, 이로써 사우스캐롤라이나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게 됐다.

그의 급작스러운 서거 소식에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과 일반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평소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던 정적들조차 사석에서는 그를 ‘가장 인간적이고 유머러스한 의회주의자’로 기억하며 슬픔을 나누고 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념과 노선은 완전히 달랐고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린지 그레이엄은 언제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타협의 가치를 아는 위대한 의회주의자였다”며 그의 공적을 기렸다. 또한, 일반 국민들 역시 고인이 유년 시절의 가난과 부모를 일찍 여읜 비극을 극복하고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한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다. 정파적 대립이 극에 달한 작금의 워싱턴 정가에서, 그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민주·공화 양당과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애도하는 드문 초당적 화합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와 트럼프 시대의 대중주의를 잇는 거대한 가교 역할을 했던 린지 그레이엄, 때로는 날선 매과로, 때로는 타협을 아는 의회주의자로, 그리고 결국에는 MAGA의 가장 실력 있는 조타수로 미 정계와 세계 정세를 호령했던 그의 퇴장은 미국 보수 정치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갔음을 엄숙히 선언하고 있다.

모자

맛있는 음식만 전하는 센터빌 빚고을에서
여름 런치스페셜을 선보입니다.
(월요일 ~ 금요일)

센터빌 빚고을 순두부

FREE 군만두

갈비 돌솔 비빔밥

\$13.99

FREE 군만두

비빔 모밀국수

\$14.99

FREE 군만두

물 모밀국수

\$13.99

Lunch
Specials

갈비 2대 + 모밀국수
Galbi (2pcs) + Cold Buckwheat Noodles

\$19.99

New
Menu

곰창순두부

703-825-1550

6035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시 설

매년 반복되는 한국의 최저임금 전쟁

2027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노사는 막판까지 대립하다 결국 합의 없이 표결을 택했고, 법정 심의 시한은 어김없이 무너졌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시한을 지킨 경우가 고작 9차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얼마나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현재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노사 양측이 ‘대폭 인상’과 ‘동결’이라는 극단적 요구안으로 평행선을 달리면, 정권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던지고 표결을 주도하는 파행이 되풀이된다.

이로 인해 결정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 시비와 진영 논리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6년 만에 최대 폭 꺾인 물가, 안심하긴 이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질주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해 시장 예상치(3.8%)를 밑돌았고, 전월 대비로는 0.4% 하락했다.

전월 대비 낙폭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지난 3월 0.9%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마·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유가 급락 덕분에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2.6%로 둔화해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지표가 인플레이션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압력이 약화한 근본 원인이 구조적인 구조 변화가 아닌,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른 국제 유가의 일시적 급락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로는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5.7%라는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는 한국의 낙후성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는 단 5명의 전문가 그룹이 최저임금을 논의하며, 독일은 7명, 영국은 9명의 정예 위원이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한다.

반면 한국은 27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이 밀실에서 고성과 삿대질로 세월을 보내다 막판 졸속 심의로 결론을 내린다.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정책이 이토록 비과학적이고 폐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다행히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종합 개선방안 마련을 공식 권고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언제까지 해묵은 진영 논리에 국가 경제의 가이드 라인을 맡겨둘 수는 없다. 경제 논리가 정치를 압도하고, 과학적 통계가 살바싸움을 대체하는 합리적인 결정 구조 확립이야말로 한국 노동시장 선진화의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듯 연준의 매파적 통화 긴축 선호 기류는 여전히 강경하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하원 청문회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물가 안정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역시 통화 정책을 추가로 긴축해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플레이션의 안정 궤도 진입을 확인하려면 향후 몇 달간 낮은 수치가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이 7월 금리 동결 이후 9월에 추가 금리 인상(0.25%포인트)을 점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 둔화라는 지표 이면에 도사린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변동성이라는 외생 변수가 살아있는 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하반기 추가 인상 카드는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시장과 경제 주체들은 눈앞의 감속 지표에 선볼리 삼페인을 터뜨리기보다, 물가 안정의 지속 가능성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다.

미디어 중앙 시론

황혼이혼의 그들과 한인들의 ‘인생 후반전’

최근 미국 언론과 통계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회적 흐름 중 하나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이혼, 즉 ‘황혼이혼’의 급증이다. 미국 전체 이혼의 약 40%가 이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혼인 지속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30년이 넘는 삶이 남았다는 인식과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관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는 미국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인 사회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한인 1세대와 1.5세대 부부들에게 황혼이혼은 더욱 복잡하고 가슴 아픈 울림으로 다가온다.

과거 한인 이민 부부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맨몸으로 부딪치며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렸다. 낮과 밤을 바꾸어 가며 세탁소에서, 뷰티 서플라이에서, 그로서리 마켓에서 함께 땀 흘렸다.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보내고 주류 사회에 안착시키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위안이자 목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부 개인의 감정적 고통이나 성격 차이는 “자식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과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 묻혀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가정을 꾸려 독립하는 순간, 한인 부부들은 거대한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과 마주하게 된다. 자녀라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사라진 집안에는 서먹한 침묵만 남는다. 평생 일만 하느라 서로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린 부부에게 은퇴 후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현실은 축복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미국적 가치관인 ‘개인의 행복’을 지켜본 자녀 세대의 지지와 한인 여성들의 경제적·사회적 독립 성장이

더해지면서, 과거라면 상상도 못 했을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는 선언이 한인 가정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다. 수십 년간 이민 생활의 무게를 견디며 쌓여온 갈등의 임계점이 마침내 터진 결과다.

우리는 황혼이혼을 단순히 ‘가정의 붕괴’나 ‘도덕적 타락’이라는 과거의 잣대로 비난만 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에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겠다는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다만, 황혼이혼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이면도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젊은 시절의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은 은퇴 자금의 분할, 메디케어 및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변화 등 경제적 생존과 직결된다. 특히 오랜 시간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었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한인 시니어 여성들의 경우, 이혼 후 급격한 빈곤층 탈락이나 사회적 고립이라는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크다.

이제 한인 사회도 황혼이혼을 쉬쉬할 만한 가정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니어 부부들의 정신 건강과 관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 한인 문화 커뮤니티나 종교 단체들이 청소년 교육이나 이민 정착 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 부부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은퇴 후 부부 관계 재정립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황혼(黃昏)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가장 붉고 아름답게 물드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민 1세대의 인생 후반전이 법정에 서의 갈라섬이 아닌,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는 ‘가장 아름다운 황혼’이 될 수 있도록, 부부 개인의 노력과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포토

텅 빈 매대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문제로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홈플러스 매장인 홈플러스 파주운정점에서 매대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미디어 중앙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6년 신입/경력 사원
공개 채용

미디어중앙에서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편집/광고 디자인 0명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이너, 포토샵, 프리미어 •일반 사무직/경리 0명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450
(교재비: \$100)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S U S H I

페어팩스 일식집 \$50만

1년 순수익 \$20만

SBA 융자 가능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370,000 → \$388,000
\$18,000불 더 받고 팔림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1,5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체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88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 좋은 가격에 아주 넓은 구조, 새 부엌



\$1,3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땅 1 에이커, 페어팩스 병원 근처



\$1,4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3+1, 차고 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며진 집



\$1,5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아주 넓고 고급스러운 집, 챌틀리 HS



\$2,100,000

비엔나 싱글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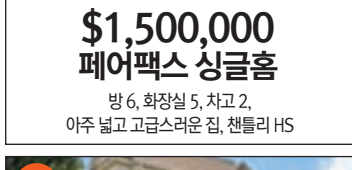
방 5, 화장실 5+1, 차고 2, 새집, 거의 다 지어진 집, 비엔나 한가운데 위치



\$1,150,000

비엔나 싱글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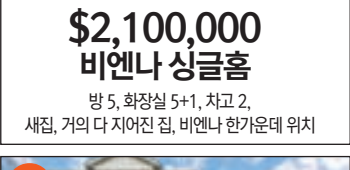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고급 집, 잘 수리 된 이쁜 집



\$1,100,000

비엔나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999년 집, 터너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1,999,000

비엔나 싱글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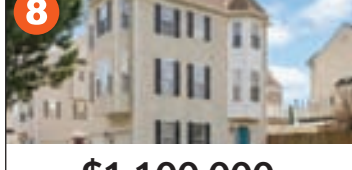
방 5, 화장실 5+1, 차고 2, 2016년,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



\$870,000

페어팩스 타운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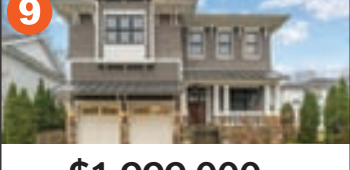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013년, 법원 근처, 아주 넓은 구조, 우드슨 HS



\$985,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새집, 페어팩스 한가운데 위치, 고급 타운홈



\$873,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Westfield 고등학교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625,000

Elkridge 타운홈

방 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750,000

실버스트링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 홈, 넓고 잘 꾸며짐



\$1,275,000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이쁘고 밝은 고급 집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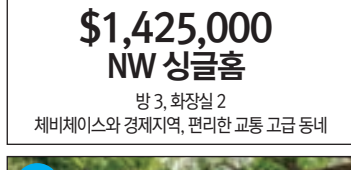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1,425,000

NW 싱글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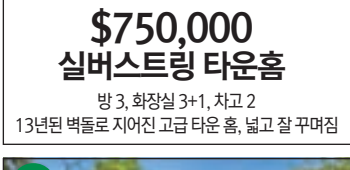
방 3, 화장실 2, 체비체이스와 경제지역, 편리한 교통 고급 동네



\$2,500,000

NW 싱글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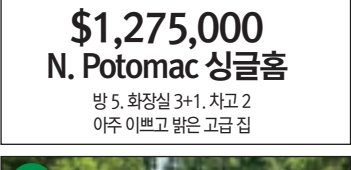
아주 크고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고급 동네



\$1,075,000

포토맥 싱글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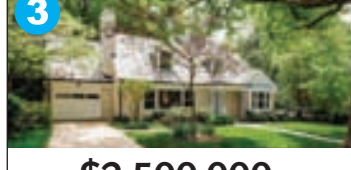
방 5,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1,070,000

N. 포토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넓은 뒷뜰, 우튼 고등학교



\$649,000

SE 타운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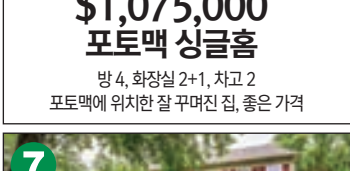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3,590,000

베데스다 싱글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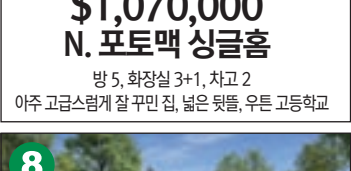
방 6, 화장실 7+1, 차고 2, 새집, 최고급 동네에 아주 넓고 이쁜 새 집



\$820,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3,59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6, 화장실 7+1, 차고 2, 새집, 최고급 동네에 아주 넓고 이쁜 새 집



\$649,000

SE 타운홈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감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예촌
빌딩**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미디어 권강
THE KOREA TODAY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만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치매 위험요인 국가와 지역마다 달라

치매의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이 국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치매 예방 전략도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서는 중등교육 미만 학력이 가장 흔한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이었고, 이어 고혈압과 흡연, 우울증 순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에서는 고혈압과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이 흔한 위험 요인으로 꼽혔고 중등교육 미만 학력은 11위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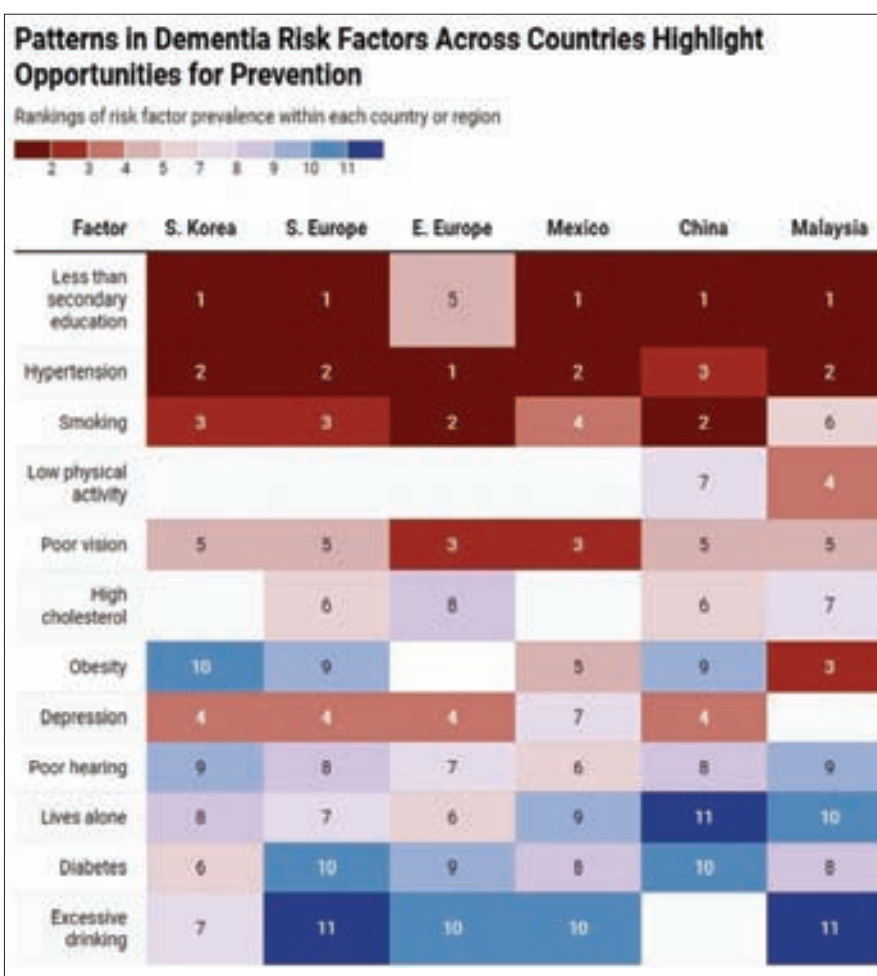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에마 니컬스 박사팀은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국제학술대회(AAIC 2026)에서 세계 14개 국가·지역 고령층 분석 결과와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의 분포가 국가마다 크게 달랐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란셋 건강한 장수(Lancet Healthy Longevity)에도 게재됐다.

연구팀은 낮은 교육 수준과 고혈압, 흡연 등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요인의 유병률이 국가마다 크게 달랐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획일적인 예방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치매 예방에 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미국과 서유럽 등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는 명확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2009~2023년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유럽4개 권역,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14개 국가·지역의 고령층 2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 자료를 통합해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랜싯 치매 위원회



한국에서는 중등교육 미만 학력이 가장 흔한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이었고, 이어 고혈압과 흡연, 우울증 순으로 나타났다. [Lancet Healthy Longevity, Emma Nichols et al. 제공]

국가·지역별 맞춤 예방 필요
심혈관 위험 요인은 함께 관리해야
한국은 교육·고혈압·흡연 순

(Lancet Commission on dementia)
가 제시한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
12가지로, 교육 수준, 고혈압, 흡연, 신
체활동 부족, 시력 저하, 고콜레스테롤
혈증, 비만, 우울증, 청력 저하, 사회적
고립, 당뇨병, 과도한 음주 등이 포함
됐다.

연구 결과 국가별 위험 요인 순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은 중
등교육 미만 학력으로 한국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에서는 가장 흔한 조절 가능한 치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병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 303-4556 / t. (703) 303-0988
 f. (703) 569-0600

6214 Old Keame Mill Ct., Springfield, VA 22155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rpk., #310-B
Annandale,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CARE SERVICE

Always With You!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료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복잡한 롱텀케어 신청 도와 드립니다.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료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TEL: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FAX: 571.789.2234

Hyunshomecare@gmail.com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www.hyunshcs.com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측정...1m³에 평균 200~300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유래 PE·PP 미세플라스틱 비중 높아

국내 대기1m³에 평균 200~30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이 대부분이었다.

12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공개한 '환경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 및 현장 적용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경기 과천시 주거단지과 안산시 산업단지에서 공기를 포집해 미세플라스틱 입자 수를 분석해 보니 각각1m³당 평균 233개와 319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과천시 주거단지에서 작년 6월10~16일 닷새간, 안산시 산업단지에서 작년5월24~30일 일주일간 하루 23시간씩 공기를 포집해 시료를 마련했다.

과천시 주거단지 미세플라스틱을 크기별로 나누면5~10μm가38%, 10~20μm가34% 이상을 차지해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이5~20μm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 산단 미세플라스틱은1~5μm가64%, 5~10μm가13%를 차지했다. 1μm는1천분의1mm이다.

성분별로 보면 대부분 시료에서 PE와PP의 비중이 높았다. PE와PP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재, 각종 생활용품의 주원료다.

과천의 경우 미세플라스틱 내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과 폴리우레탄(PU) 비중이 비교적 높았는데 건축자재나 코팅마감재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안산은 폴리염화비닐(PVC)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SBR(스타이렌 부타다이엔 고무)의 비중이 높았다.

과천시 주거단지 시료에서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폴리아마이드(PA) 미세플라스틱도 검출했는데 옷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아직 유해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국제적



플라스틱 폐기물

[연합뉴스]

으로 합의된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이 사람 폐 조직에 침투할 수 있다는 보고와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잔류하며 독

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최근엔 미세플라스틱이 온실가스 순환을 막고 빛의 반사 특성, 즉 '알베도'를 변화시켜 기후변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원이 개발 중인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배달음식점 점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업소3천700여곳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배달음식점의 경우 지금껏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건장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또 지난1일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김밥과 토스트 음식점 등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식중독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식약처는 삼계탕과 냉면, 김밥, 토



라이더의 모습

[연합뉴스]

식약처, 삼계탕·냉면 등 조리식품 160여건 수거 검사

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을 검사한다.

이와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028년까지 국민5천명을 대상으로 한 '제2기 유해물질 인체노출 안전조사'를 진행한다.

식약처와 충북대 등14개 기관이 참여해 참가자의 혈액이나 소변 내 중금속, 비스페놀 등 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하고 임상 검사와 설문 조사를 진행해, 생활 방식과 인체 내 유해물질 농도의 관련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찜통더위 속 온열질환자 속출...주말 사이 200여명 응급실행

폭염이 시작되면서 주말 사이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2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인 11일 전국에서 115명, 일요일인 12일88명 등 주말 사이 203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사망자는 없었다.

질병청은 지난5월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6곳과 함께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는6월 중순 이른 더위가 찾아왔지만, 6월 하순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들어와 기온을 평년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에 온열질환자 수도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5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462명)의 절반을 밑돌았다.

하지만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까지 유입돼 주말 사이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이달4~5일(9명)의20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741명이다. 이 가운데 30.0%는65세 이상의 노인이

고, 질환 가운데서는 열탈진이 57.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발생 시간은 오전6시~오전 10시가 15.5%였는데1시간 단위로 보면 오후2~3시가 10.9%, 오전 10시~11시가 10.5%, 오후3~4시가9.9%였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이 22.5%, 논밭이 18.2%, 길가가 15.4%였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 경련, 피로감으로 시작하더라도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당분간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했다.

온열질환을 피하려면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게 좋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도 중요하다.

학생들도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해야 하고,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도 주의해야 한다.

Health Through Love
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도 도로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샬러츠타운 북서쪽은 한아름(Han-arm)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캔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서쪽 / 한아름(Han-arm)과 캔들리 북서쪽에서 각각 5분거리

진료 과목

- 척추질환
- 좌골신경통
- 오십견
- 관절염
- 요통
- 소아과
- 부인과
- 생리불순
- 생리통
- 입덧
- 두통
- 위장질환
- 면역질환
- 한약처방 조제
- 불임치료
- 중풍
- 안면 신경마비
- 비염
- 알러지 질환
- 수술 및 사고 후 통증
- 노인성 변비
- 질환성 비만
- 추나 요법
- 전기침 요법
- 부항 및 운동 처치 요법
- 테이핑 요법
- 한국산 수제 우황청심환

문의·예약 703.642.6066

웹사이트 hanilacu.com

중의학 박사 연태흠 원장

- 상해중의약대학 본과 및 박사 졸업
- 상해 서광의원 정현외과 4년 연수
- 한국 한일한의원 부원장 역임
- 중국 국가급 명의 석씨상과 사사

교통사고 보험

- CareFirst
- United Healthcare
- Anthem
- Aetna
- Humana
- Medicare Advantage Plan
-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 Veterans Affairs

※ 보험 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년을 이어오는 신실함

한일한의원

7345 Mcwhorter Pl. Suite 101, Annandale, VA 22003

“위암의 적 ‘헬리코박터균’ 없애니 대장암도 크게 줄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하 헬리코박터균)은 사람의 위 속에서 살아가는 세균으로, 오래 방치하면 위염과 위궤양을 거쳐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런 이유로 헬리코박터균을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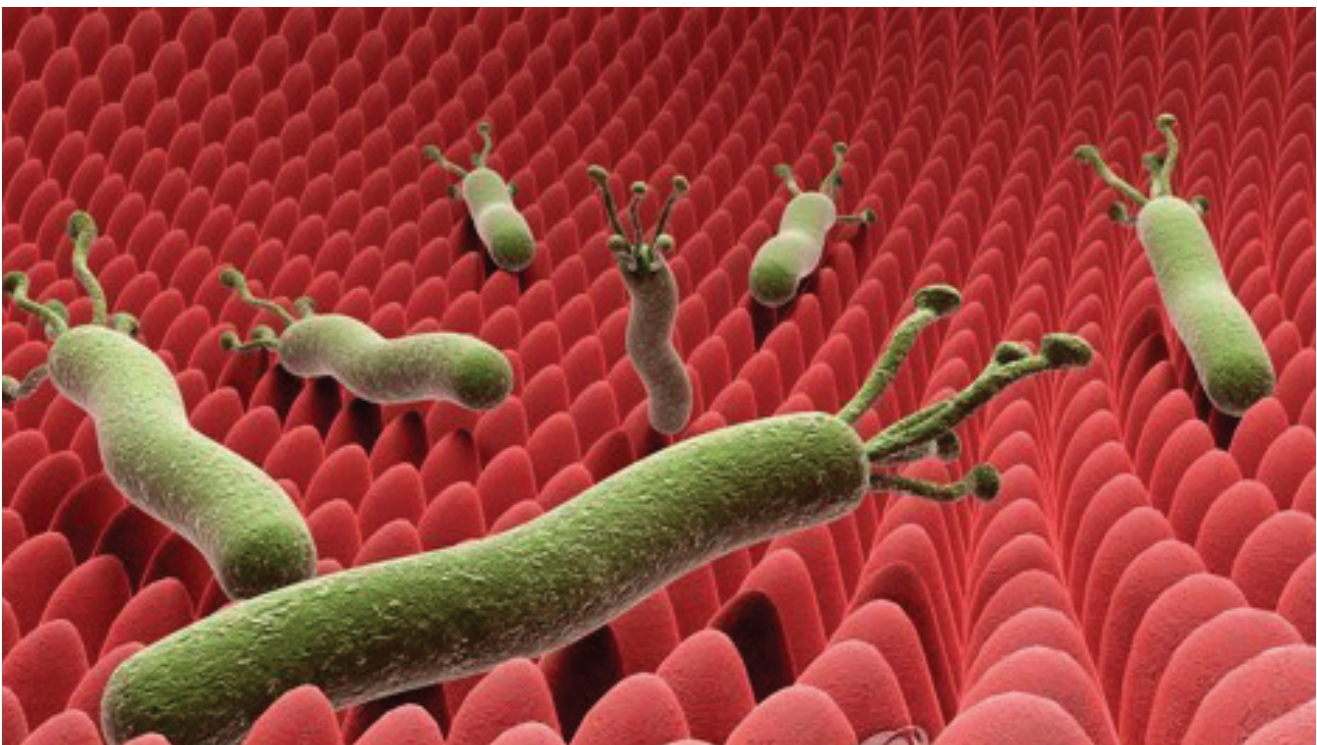
유독 위암 유병률이 높은 한국인의 경우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의 위암 발생 위험은 균이 없는 사람보다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의 효과가 위를 넘어 대장암 예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양의대·이화대의·성균관의대 공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위장병·간장학’(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 사람은 치료하지 않은 사람에 견줘 대장암에 걸리거나 대장암으로 숨질 위험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2009~2011년 처음으로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은 성인 93만1천 585명을 선별한 뒤 평균 12.4년 동안 추적해 대장암 발생과 사망 여부를 살폈다. 대조군은 같은 연령대와 성별의 일반 국민이었다.

이 결과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 위험은 대조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내 93만명 12년 추적…대장암 발생 34%, 사망 위험 49% 감소
“제균 후 장 점막 보호기능 살아나고 염증 감소한 효과 추정”

보다 34%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쉽게 말하면 일반인에게 대장암 환자가 100명 생길 때 제균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약66명 정도만 발생한 셈이다.

대장암으로 목숨을 잃을 위험은 더 크게 줄었다.

제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사망 위험이

49% 낮았다. 다시 말해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예방 효과는 특정 연령층에만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3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거의 모든 연령에서 대장암 위험이 감소했으며, 이 중5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38% 낮았다.

눈에 띄는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더 커졌다는 사실이다.

제균 치료 후5년 미만에서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0% 낮았지만, 치료 후10년 이상이 지나자 위험 감소 폭은 48%까지 커졌다.

대장암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생기는 질환인 만큼 헬리코박터균을 없앤 효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관성이 나타난 이유로 헬리코박터균이 몸속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으로 봤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암 발생을 촉진하는 염증 반응이 커지고, 장 점막을 손상하는 세균은 늘어나는 반면 장을 보호하는 유익균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제균 치료를 하면 이런 변화가 상당 부분 회복된다. 장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살아나고 염증도 줄면서 대장암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의대 연구팀이 2024년 ‘임상 종양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한 논문과 비슷한 맥락이다.

미국의 재향군인 81만2천736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비감염자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18%, 대장암 사망률이 12%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치료하지 않은 사람은 대장암 발생률이 23%, 대장암 사망률이 40% 각각 높았다.

헬리코박터균 관련 권위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는 위암뿐 아니라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암과 대장암이 모두 흔한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제균 치료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 타이레놀 자폐유발 논란 미국 법정공방 부활

항소심 재판부 “1심 재판부, 전문가 의견 증거 배제는 잘못”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다.

미국 뉴욕 소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3일(현지시간)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관련 소송을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자녀가 자폐증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타이레놀 판매사 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기

각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인 안드레아 바카렐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의료 전문가들을 증인에서 배제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 잘못된 조치였으며 견해의 타당성 여부 판단은 배심원단에 돌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이나 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500여건의 소송을 부활시켰다고 WSJ은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열진

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자폐증 유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바카렐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을 위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졌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자폐아 출산 연관성 주장은 보건·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불렀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미 식품의약국(FDA)도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는 의견을 냈다.



타이레놀

[AP=연합뉴스]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Care People Home Health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건강하게 먹는 것, 칼로리를 잊어라

건강의 시작이 뱃속 정원, 즉 장내 세균 생태계에 있다면, 그 정원을 가꾸는 첫 번째 도구는 매일의 식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놓고 늘 혼란에 빠져 있다. 지방이 나쁘니 탄수화물로 살을 빼라는 말과 고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니 줄이라는 말이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탄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방향을 잡아 보고자 한다.

풍요 속의 빈곤

현대인의 식습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 칼로리 섭취는 충분하거나 오히려 넘치는데, 정작 양질의 영양분이 모자라 몸속 세포는 굶고 있다. 이른바 빈 칼로리(empty calorie)의 시대다. 설탕이 든 음료, 정제된 과자와 패스트푸드처럼 열량은 높되 비타민·무기질·식이섬유가 빠진 음식이 식탁을 점령한 결과다.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을 피하고, 적당히 바르게 먹는다는 세 가지 원칙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식품에 관한 지식이 넘쳐나는 것도 혼란을 키운다. 학계의 오락가락하는 논문 발표에다, 매체와 SNS를 파고든 식품산업 거대 자본의 입김이 겹친다. 실제로 2016년 국제 학술지 ‘자마 인터널 메디신’(JAMA Internal Medicine)에는 1960년대 미국 설탕업체가 하버드대 연구자들에게 돈을 주고 심장병의 주범을 설탕이 아닌 지방으로 돌리는 논문을 쓰게 했다는 내부 문건 분석이 실려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후 반세기 동안 ‘저지방’ 열풍이 불었고, 그 빈자리를 설탕이 채웠다.

인공감미료 사카린의 부침도 상징적이다. 1970년대 동물실험에서 방광암 유발 물질로 지목돼 각국에서 퇴출 위기를 겪었던 사카린은 이후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쌓이면서 2000년 미국 정부의 발암물질 목록에서 빠졌고, 최근에는 우수한 감미료로 재평가받고 있다.

과학이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이지만, 뒤집힌 것이 과학만은 아니었다. 그 배후에서 업계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 역시 이제 공공연하다. 소비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공통점 있어

100세 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조사한 결과는 흥미롭다. 에스키모는 고단백·고지방의 고기를, 일본인은 생선을,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탄수화물·고칼로리인 고구마를 즐겨 먹었다.

세계적으로 장수촌 연구가 활발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블루존’(Blue Zones) 조사에서도 일본 오



[Pixabay]

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등 장수 지역의 식단은 제각각이었다. 먹는 음식의 형태가 이토록 다르니 ‘장수 음식’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의 식탁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그 지역 식품을 먹는다. 둘째, 제철 특산품을 많이 먹는다. 셋째,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한다. 오키나와 노인들이 지켜온 ‘하라하치부’(腹八分), 곧 배가 여덟 분쯤 찼을 때 수저를 놓는 절제의 습관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누구와,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예부터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지혜가 여기에 닿아 있다.

좋은 것을 먹는다는 것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물이다. 여기에 영양제와 슈퍼푸드, 폴리페놀 같은 것이 도움을 준다.

탄수화물은 같은 당 함량이라도 천천히 흡수되는 것이 좋다.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를 따지는 ‘혈당지수’(GI) 개념이 나온 이유다. 프렌치프라이처럼 가공·처리된 고밀도 탄수화물보다, 고구마나 당근처럼 덜 처리된 저밀도 탄수화물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짜게 먹던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소금 섭취를 5g(나트륨 2천 mg) 미만으로 권고하지만, 국물과 절임 음식이 많은 한국인의 섭취량은 여전히 그 기준을 크게 웃돈다. 냉장고가 없어 소금에 기대어 음식을 보관하던 시대는 지났으니, 나트륨 과다가 부르는 갈증과 고혈압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나트륨이 지나치게 부족해도 두통과 경련이 오니 적정량이 관건이다.

심장을 지키는 식단으로는 지중해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과일과 채소, 올리브유와 견과류, 마늘과 해산물, 그리고 절제된 한두 잔의 레드와인이 그 뼈대다. 심혈관 고위험군 수천 명을 추적한 스페인의 대규모 임상시험 ‘프레디메드’(PREDIMED)에서 지중해식 식단이 심근

경색·뇌졸중 등 심혈관 사건 위험을 30%가량 낮춘다는 결과가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발표됐고, 이후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

무지개 색깔의 식탁으로

결론은 명료하다. 음식의 칼로리는 잊어야 한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먹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못된 음식, 나쁜 질의 음식, 지나치게 처리된 음식을 먹었는가를 물어야 한다. 설탕이 첨가된 음식은 멀리하고,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을 가까이하라.

탄수화물·지방·단백질·무기질을 일일이 따지기보다, 무지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편이 낫다. 색소 성분 자체가 항산화 물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각종 베리류, 다크초콜릿과 녹차에는 폴리페놀이 그득하다. 원래 식자재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음식, 곧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일, 그것이 뱃속 정원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

엄용의 서울의대 명예교수

한의 약침으로 파킨슨병 통증 조절 가능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김노수 박사 연구팀이 파킨슨병 동반 통증 동물모델에서 약침의 진통 효과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파킨슨병은 떨림, 강직 등 운동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통증, 수면 장애, 우울감, 변비 등 다양한 비운동 증상도 가

져온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40~85%가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연구팀은 파킨슨병 통증 생쥐 모델의 양릉천에 ‘SU아혈’ 약침을 주사했다.

양릉천은 종아리 바깥쪽에 위치한 경혈로, 한의학에서는 운동기능과 통증 조절에 활용돼 온

부위다.

실험 결과, 파킨슨병 동물은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통증 과민 상태를 보였지만, 양릉천에 SU아혈 약침을 주사한 무리에서는 통증 반응을 보이기까지 필요한 통증 반응 역치가 대조군보다 최대 약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침 투여 후 통증 민감도가 완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반면 같은 약침을 경혈이 아닌 다른 부위에 주사했을 때는 뚜렷한 진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부연했다.

김노수 박사는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비운동 증상”이라며 “이번 연구는 파킨슨병 연관 통증에서 한의 약침의 진통 효과와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을 동물모델에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개봉 20주년 ‘타짜’ …유해진 “고광렬 연기 후 앞이 보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토크…“조승우와 함께 한 기억 참 좋았다”

최동훈 감독 “차기작은 추리 · 첩보 · 하드보일드 드라마”

“대표작에 대한 질문을 자주 듣는데요, 어느 하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타짜’) 고광렬입니다”

11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타짜’ 메가토크에 참석한 배우 유해진은 “안녕하세요, 고광렬입니다”라는 첫인사로 등장해 극 중 역할에 대한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2006년 개봉한 최동훈 감독의 ‘타짜’는 올해로 개봉 20주년을 맞았다. 20년 전에는 극장에서, 이후엔 TV에서 방영하는 특선영화로 술하게 ‘N차 관람’을 했을 관객들은 이날 부천시청 어울마당의 500여석을 꽉 채워 영화를 관람했다.

유해진은 “‘타짜’를 촬영했을 때가 서른 후반쯤이었는데, 배우로서의 위치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했고 생활적인 면도 넉넉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다 ‘타짜’ 이후부터 ‘아 그래도 좀 앞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고광렬에 대한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해진이 ‘타짜’에서 연기한 고광렬은 주인공 고니(조승우 분)와 짝을 이뤄 전국의 도박판을 휩쓰는 인물이다.

화투를 치면서 끊임없이 입을 놀려 상대의 멘탈을 흔들고,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도박판에서 끝까지 고니와의 우정을 이어가는 인간적인 캐릭터로 그려진다.

유해진과 함께 메가토크 행사에 참여한 최동훈 감독은 “원래 영화에선 주인공 옆에 있는 인물이 중요하다”며 “유해진의 고광렬은 말맛을 살리고, 온갖 임기응변으로 사람(관객)을 사로잡는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고광렬이 이끌어가는 일부 장면들은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유해진의 제안으로 추가됐다고 한다.

고니와 연락이 끊어진 고광렬이 정마담(김혜수)에게 고니의 소식을 걱정스레 묻는 장면도 유해진의 아이디어로 추가됐다.

최 감독은 이 장면을 언급하며 “유해진 씨가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그다음 날 바로 찍은 것”이라며 “그런 장면이 없었다면 고광렬의 휴머니티가 온전히 살아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돌아봤다.

유해진도 “(메가토크 행사에) 오면서 저도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면서 “정마담이 게서서 그런지, 저한테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영화 속에서 형제애와 동지애를 나눈 배우 조승우와의 호흡도 남다르게 떠올랐다.

유해진은 “현장에서 조승우와 거의 계속 붙어 다녔던 기억이 참 좋았다”면서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정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 사는 얘기가 담겨 있는 영화를 재밌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11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영화 ‘타짜’ 메가토크에서 최동훈 감독과 배우 유해진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진은 앞서 지난1월 ‘왕과 사의 남자’ 개봉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박지훈과 촬영 현장에서 자주 함께 걸으며 단종과 엄홍도처럼 돈독해졌다고 애뜻하게 언급한 바 있다.

‘타짜’ 이후 ‘전우치’(2009)와 ‘도둑들’(2012), ‘암살’(2015), ‘외계+인’(2022)과 2024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 온 최동훈 감독은 현재 차기작 시나리오를 집필 중이다.

최 감독은 “차기작 시나리오를1년4개월째 쓰고 있다”며 “장르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추리, 첩보, 하드보일드

드라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어 “저는 드라마 속에서 속속 속이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며 “(차기작은) 그런 유의 스토리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객과 한데 어울려 20년 전에 개봉한 영화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최 감독은 친근한 현장 분위기에 젖은 듯 영화 결말 부의 뒷이야기도 꺼내 놓았다.

고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 수화기를 드는 마지막 장

면을 두고 영화 팬들 사이에선 상대방이 누구지 의견이 분분하다.

최 감독은 “다들 고니가 마지막에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냐고 물어본다”며 “원래는 이분한테 하는 것”이라며 옆에 앉은 유해진을 가리켰다.

이어 “그 부분(고니가 고광렬에게 전화하는 부분)을 빼니까 불완전한 엔딩 같아서 더 느낌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최 감독은 이어 “어쩌다 20년이 흘렀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며 “타짜를 뛰어넘는 영화를 꼭 찍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파라마운트-워너 인수 막아선 미국12개주…“경쟁 사라질 것”

캘리포니아·뉴욕 등 반 독점법 소송
파라마운트, 인수 지연에 금전부담 우려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가 영화·미디어계 대형 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간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은 13일 캘리포니아·애리조나·콜로라도·코네티컷·매사추세츠·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뉴욕·오리건·워싱턴 등 12개 주 정부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간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양사 합병이 1914년 제정된 클

레이턴 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합병이 성사되면 영화계의 경쟁을 저해하며 블록버스터 영화 배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는 콘텐츠 품질이 저하되고 영화와 TV쇼 제작이 줄어들며,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합병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전역의 거실 소파와 영화관 좌석에 앉아있는 모든 관객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2개 주 정부는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합병을 완료하지 말라고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측에 요청했다. 이를 거부하면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라마운트 측은 “반독점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거대 기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으로 파라마운트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예 떠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으로 인해 인수·합병이 지연되

면 파라마운트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에 인수안을 제시하면서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올해 10월부터 주당 25센트, 분기당 6억5천만 달러(약 9천747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이른바 ‘티킹 피’ 조약을 넣은 바 있다.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인수는 인수전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당초 지난해 12월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주당 27.75달러, 총 827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가 소송과 적대적 인수 시도 등을 병행한 끝에 주당 31

달러, 총 1천110억 달러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놔고, 넷플릭스가 2차 인수전에서 포기를 선언하면서 파라마운트가 승자가 됐다.

대형 영화 스튜디오와 케이블 방송사를 거느린 두 공공 기업을 합치게 된 만큼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실무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이 이끄는 기업으로,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특수관계 논란에 휩싸여왔다.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최만순의 약이 되는 K-푸드 약초에서 채소로, 당근의 내력

인류는 오래전부터 땅속에서 자라는 식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하늘의 기운은 위로 모이고 땅의 기운은 뿌리로 응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주황빛 태양의 색을 품은 당근을, 양생 전문가들은 생명의 정기를 저장한 뿌리로 여겼다.

당근은 약이 먼저였고 채소는 나중이었다. 원산지는 오늘날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일대로, 약5천 년 전부터 식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야생 당근은 지금처럼 굵고 단 주황색 뿌리가 아니라 보라색이나 노란색, 흰색을 띤 가늘고 질긴 뿌리였고, 사람들은 뿌리보다 씨와 잎을 약재나 향신료로 썼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황색 당근은 한참 뒤의 산물이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노란색과 붉은색 계통을 교배해 심까지 고르게 물든 단맛 강한 품종을 길러냈는데, 독립 영웅 오라네 공(오렌지공)을 기리는 상징색이 주황이었던 까닭에 이 색을 집중 보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맛과 색을 앞세운 이 품종이 이내 세계의 표준이 됐다.

동쪽으로는 13세기 원나라를 거쳐 한반도로 전해졌다. ‘농상집요’에 약용식물로 올라 있고, ‘본초강목’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이로운데 있고 해가 없다 하여 그 효능이 인삼에 견줄 만하다고 적었다. ‘작은 인삼’이라는 뜻의 ‘소인삼’(小人蔘)이라는 별칭이 여기서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물보’와 ‘임원경제지’에 기록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말의 사료로 여겨지다 점차 식탁으로 올라왔다.

◇ 당근의 양생학

양생은 음양의 균형을 중히 여긴다. 당근은 성질이 평(平)하고 맛이 달아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일용보초’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아래로 내려 위장의 정체를 풀어준다고 했고, ‘의림찬요’는 신장을 윤택하게 하고 원양을 복돋우며 하초를 따뜻하게 한다고 기록했다.

당근의 가장 큰 미덕은 비위(脾胃)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다. 약전에서 비위는 음식을 기혈로 바꾸는 공장이자, 군대로 치면 병참기이다. 아무리 좋은 병사가 있어도 군량이 끊기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 소화력이 약하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혈이 모이지 않는다. “비위가 편안하면 백 가지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옛말이 그래서 나왔다. 당근이 소화불량과 오래된 설사에 쓰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손자병법 균형(軍形) 편은 이길 형세를 먼저 갖춘 뒤 적이 무너질 기회를 기다리라 했다. 병이 생긴 뒤 치료에 나서는 것은 전쟁이 터진 뒤에야 병사를 모으는 일과 같다. 면역력을 기르고 소화력을 높여 두는 일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진지를



당근 수확

[연합뉴스]

미리 쌓는 균형의 지혜다.

현대 영양학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당근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약8천㎍ 들어 있어 비타민A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긴다.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A로 바뀌어 눈과 점막을 지키고, 루테인 같은 카로티노이드와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의 산화를 늦춘다. 늙음은 세월보다 세포의 산화에서 온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과도함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양생의 핵심은 늙는 속도를 늦추는 데 있다.

당근에는 혈압과 혈관을 돕는 칼륨,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펙틴, 간의 해독을 돕는 글루타티온도 들어 있다. 근래에는 팔카리놀(falcarinol)이라는 성분이 주목받는다. 영국 뉴캐슬대와 덴마크 연구진이 쥐



제주 흙당근

[촬영 조채희]

에게 당근과 팔카리놀을 먹인 실험에서, 그렇지 않은 쪽보다 암 발병이3분의1가량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연구진은 당근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익히면 팔카리놀이 25%가량 더 보존된다고 밝혔다.

베타카로틴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다. 그래서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10% 안팎에 그치지만, 기름을 살짝 둘러 익히면 30~60%까지 오른다. 가열하면 단단한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흡수가 한결 쉬워진다. 땅의 기운을 품은 뿌리채소답게, 자극적으로 복기보다 부드럽게 익히는 조리법이 어울린다. 우리 조상들이 당근을 국과 찜, 나물, 전, 떡에 두루 쓴 데에는 이런 이치가 담겨 있다.

당근과 좋은 짝은 사과다. 당근의 카로틴과 사과의 비타민C, 칼륨이 서로를 보완한다. 다만 당근에는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효소가 있어, 생으로 함께 먹을 때는 살짝 익혀 효소의 작용을 누그러뜨리는 편이 낫다.

◇ 손자병법으로 바라본 당근 요리법

손자는 ‘병(兵)은 궤도(詭道)’, 곧 전쟁은 속임수라 했다. 당근의 역사에도 그런 기만전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은 야간에 독일 폭격기를 정확히 요격했는데, 그 비결은 새로 개발한 항공 레이더였다. 영국은 이 기술을 감추려고 조종사들이 당근을 많이 먹어 밤눈이 밝아졌다는 선전을 퍼뜨렸고, 마침 부족하던 식량 사정 속에

당근 소비까지 끌어올렸다.

과장된 이야기였지만, 베타카로틴이 비타민A로 바뀌어 야맹증을 막는다는 사실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당근은 조리법마다 다른 얼굴을 보인다. 맑은 당근국에서는 소고기와 무, 파를 받치며 자연의 단맛을 낸다. 사과와 견과를 곁들인 당근샐러드는 기혈을 보태면서 몸을 가볍게 하니, 병이 오지 못하게 막는 예방의 음식에 가깝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당근조림은 기다림의 맛이다. 기름을 둘러 굽는 당근구이는 길을 노릇하게, 속을 부드럽게 익혀 베타카로틴 흡수를 끌어올린다. 발효를 거치는 당근김치는 유산균과 베타카로틴이 만나 장을 돕는다.

당근주스는 태양과 흙, 바람과 시간을 함께 마시는 일이 되, 손자가 지나침을 경계했듯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

노자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작은 불균형이 오래 쌓여 모습을 드러내고, 건강 또한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진다. 손자가 품은 최고의 승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듯, 최고의 양생은 병이 오기 전에 몸의 형세를 갖추는 것이다.

오늘 식탁 위의 당근 한 뿌리에는 태양의 색과 땅의 기운, 그리고 오래 이어져 온 양생의 지혜가 함께 담겨 있다.

최만순 음식 칼럼니스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8강 노르웨이 금의환향…왕세자 북치고 팬과 ‘노젓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8강에 오르며 새역사를 쓴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이 금의환향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한국시간) “10만 명이 넘는 팬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거리를 가득 메우며 축구 대표팀을 영웅처럼 맞이했다. 월드컵 탈락의 아쉬움은 거대한 국가적 축제로 바뀌었다”고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노르웨이 선수단의 귀국 모습을 전했다.

노르웨이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7골을 터트린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을 앞세워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8강에 진출했다.

비록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연장 혈투 끝에1-2로 역전패해 위대한 도전을 끝내야 했으나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오른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감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16강전에서는 최다 우승국(5회) 브라질을2-1로 누르기도 했다.

노르웨이 팬들은 끝없는 시간을 보내게 해준 대표팀을 뜨겁게 맞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월요일 오후 오슬로의 왕궁 광장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환영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들



수도 오슬로에 모인 노르웨이 축구대표팀 환영 인파.

[AP=연합뉴스]

었다. 노르웨이는 총인구는 약560만명이다.

팬들은 왕궁 광장을 가득 메웠고, 중심가인 칼 요한스 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섰다.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오슬로 공

항에 도착하자 먼저 소방차에서 뿔어져 나오는 물줄기 세례로 전통적인 환영 인사가 이뤄졌다.

선수들은 왕궁으로 이동해 하랄5세 국왕과 환담한 뒤 왕실 근위대가 도열한 가운데 왕궁 밖으로 나와 팬들에게

인사했다.

이어 노르웨이 왕위 계승자인 호콘 왕세자가 치는 북소리에 맞춰 이번 대회 기간 노르웨이를 상징하는 응원 문화가 된 ‘바이킹 노 젓기’ 세리머니를 수만 명의 팬과 함께 펼치며 월드컵8강

신화의 기쁨을 나눴다.

다만, 세리머니에 홀란은 참여하지 못했다.

스톨레 솔바켄 노르웨이 대표팀 감독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4시간 지연되는 바람에 귀국 후 연결 항공편을 타야 했던 홀란과 미드필더 산테르 베르케는 노 젓기 세리머니를 포함해 환영 행사의 후반부는 함께할 수 없었다.

앞서 홀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술병을 든 너구리 박제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선수단은 이후 오픈 톱 버스에 올라타고 오슬로 시내를 도는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인파 때문에 퍼레이드 버스는 여러 차례 멈춰 섰고, 경찰 호위대가 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버스가 후진하기도 했다. 환영 행사는 해가 진 뒤에도 계속됐다.

대표팀 주장 마르틴 외데고르는 노르웨이 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광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많은 응원을 받고, 온 나라가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 정말 환상적”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최강원투펀치…네일 · 올러 vs 광빈 · 최민석 vs 톨허스트 · 임찬규

지난해 프로야구 최강 원투 펀치는 한화 이글스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였다.

폰세(17승·180%이닝)와 와이스(16승·178%이닝)는33승과 359⅓이닝을 합작했다. 1인당 평균 15승 이상, 179%이닝을 던진 놀라운 결과다.

둘이 미국으로 떠난 올해 최강 원투펀치 경쟁은 삼각 구도를 형성했다.

외국인 듀오, 토종 듀오, 외국인과 토종 콤비로 모양새도 다채롭다.

먼저 KIA 타이거즈의 제임스 네일(5승·102%이닝)과 애덤 올러(9승·99⅓이닝)는 투구 이닝에서 다른 팀 원투펀치를 능가한다.

신규 선수 연봉 최대치를 100만달러로 묶는 등 외국인 선수 몸값에 제한을 두는 KBO리그에서 더는 압도적인 외국인 투수를 데려오기 어려운 만큼, 각 구단은 15승을 올리는 투수보다는 선

발 로테이션을 시즌 내내 꾸준히 돌아 150이닝 이상을 던져줄 견고한 이방인 투수의 가치를 높게 친다.

시즌을 완주한 두 외국인 투수가 합쳐서 300이닝만 던져도 성공작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검증된 KBO리그3년 차 네일과2년 차 올러는 제 몫을 해내고 있다. 특히 올러는 다승 공동1위, 평균자책점2위(2.36), 탈삼진2위(108개)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중이다.

두산 베어스의 광빈과 최민석은 올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최대 기대주다.

나란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대표팀에 뽑힌 광빈(8승·97이닝)과 최민석(9승·92%이닝)은17승을 함께 올려 LG 트윈스 앤더스 톨허스트(8승·92%이닝)와 임찬규(9승·95⅓이닝) 콤비와 더불어 10개 구단 원투

펀치 중 최다승을 거뒀다.

최민석은 다승과 평균자책점1위(2.33)를, 광빈은 탈삼진1위(112개)를 질주하는 등 ‘계산이 서는’ 마운드 운용으로 김원형 감독을 기쁘게 한다.

데뷔9년 차 광빈이나2년 차 최민석 모두 커리어 하이 시즌을 예고했다.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에1승을 남긴 임찬규와 시즌 시작 후 한 경기도 거르지 않은 톨허스트는 LG의 보배다.

날이 무더워지면서 톨허스트의 기세가6월 이래 한풀 꺾였지만, 올스타 휴식기를 거쳐1선발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면 KIA, 두산과 벌일 원투 펀치 경쟁도 한층 흥미로워진다.

임찬규는 톨허스트가 부진했던6월과 전반기 막판에5승을 쏟아 담아 LG 선발진을 든든히 지켰다.



위부터 두산 광빈·최민석, KIA 네일·올러, LG 톨허스트·임찬규

[연합뉴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편두통, 경부통, 요통, 오십견, 좌골신경통,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근섬유통 등)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전문
- 구안와사 (안면마비)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식도염 등), 순환장애, 수족냉증
-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증상, 전립선질환, 발기부전
- ADHD (과잉행동장애), PTSD (외상후 증후군)
- 수술후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교통사고 전문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 국의대사(国医大师) 연정화(颜正华)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석사, 박사
- 임상 26년 경험



한국산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홈페이지: WWW.CHAI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전화 예약환자에 한함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7월 스페셜 SALE

Special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돌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GH 온열 지압 침대의 특징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 온열 지압 카우치



▶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흙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흙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ECO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2,900 \$2,300



\$3,000 \$2,500



본토흙침대 100% 생황토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흙 침대

휴표 흙침대 워싱턴 대리점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흙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흙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휴표 흙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퀵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건강을 해치고 피로를 풀어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꺼풀,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 히트상품 ★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딤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뀔때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동 매트
2020년 최우수 상품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학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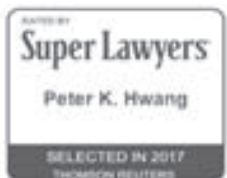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교통사고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7월
구
인
광
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미디어 중앙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하실
여자 직원 구함

유 경험자,
무 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Stafford, VA

(540)368-9699

메디케어(Medicare) 전문가 Paul Kim(수봉)

“복잡한 메디케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5세 (1961년생) 신규 가입부터 플랜 변경까지,
메디케어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 나에게 꼭 맞는 파트 C(우대 플랜)와 파트 D(처방약 플랜)는 무엇일까?
- 정부 보조 혜택(수수로 면제 등)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 수많은 플랜 중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딱 맞춘 최적의 선택을 찾아드립니다.

체크 리스트

1. 올해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카드를 처음 받으시는 분
2. 현재 가진 플랜의 치료, 안경, 약 보조 혜택을 더 키우고 싶은 분
3. 다른 주에서 이사 오셨거나 처방약 변경이 필요한 분

“알기 쉬운 메디케어,
무료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 703-223-6961 (편하게 전화 주세요)

*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 정부 보조 프로그램 상담 가능
* 개인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15,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
넥타이/벨트(가족)/양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플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미디어 중앙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미디어 중앙으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세탁/기타구인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70세 여성입니다.
함께 가족처럼 지내실분을 찾습니다.
여자분에 한함, 숙식 제공
240-997-3168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설거지등 주방
뒷일 하실분 모집
주말 포함 주 3-5일 근무 가능하신 분
무경험자 환영
443-386-0515

볼티모어 쇼핑센터 빨래방에서 식구가 많아
서운영하실분

213-220-8873

픽업 스토어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빨래 깨끗이 빨아줄 공장을 찾고 있으며,
A급 스팟맨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703-966-9072

한식당 해반(HYEBAN)에서 직원 모집
-주방 쿡/헬퍼/웨이츄리스(숙식제공)
Tel: 443-420-3096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 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중고 매매/기타

야마하 피아노 무빙 관계로 싸게 팝니다.
상태 아주 양호
443-980-4505

명품 중고 골프 클럽 싸값에 팝니다.
703-966-9072 (Kim)

케어 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8/10 - 8/14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싱글/타운/방 렌트

BWI 공항 근처 싱글홈 지하 전체 렌트
출입문 별도
240-393-5530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인터넷, 침대, 가구완비
301-538-1438

저먼타운 싱글홈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부엌, 가설, 욕실, 출입문 별도
\$1,4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버트스빌 싱글홈 1층 렌트
(콜롬비아에서 15분, 엘리컷시티에서 20분
거리) 방2, 화1.5, 욕실, 주방, 새페인트, 새
가전제품, 프리파킹, 모든것 포함 \$1,900
443-983-8100

사업체 매매

** K BBQ & HOT POT 급매 \$215,000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최근 리모델링, 게이더스버그
240-988-6868

** 미장원 급매
5일 영업, 월 순수익 \$6,000,
알링턴 VA, 좋은동네, 발전 가능성 많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 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수 있는 자리,
리스 space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컨비니언 스토어
\$1.95M 코너랏, 단독 빌딩 유니언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 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골프등,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주6일 오픈, 월 순수익 2만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 순수익 3만 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완벽한 설비 시설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 703-678-9790
영어 : 703-499-2466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월 1만5천 순수익
-매매가 15만 + 인벤토리
-메니지먼트 가능
-피터스버그, VA
문의 :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고정 단골 손님 많음
-월세 \$2500, 월 순수익 \$6천 이상
-PT 일하실분 구함
문의 : 703-907-9541 (문자 요망)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쿠팡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라, 주 \$1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콧 시티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 sf
▶문미애 703-534-4989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Christian Educational Counselor:
Develop, select and periodically
evaluate age-appropriate Biblical
education curricula and materials
for children from 18 months up to 12
years: Work in coordination with the
Chaplain and educational committee to
ensure the curriculum reflects Christian
values, child-development principles,
and aligns with the worship program;
Prepare a weekly feedback to parents
concerning Biblical education of
students and their overall progress;
Christian counseling to students
and their parents as part of a family-
counseling approach. Act as a source
of comfort and support for children.
40 hrs/week. Master's degree in
child education or related field req.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The Sent Christian School at
15451 Rt. 29, Centreville, VA 20121

Assistant Pastor: Assist the Senior
Pastor in adult ministries; Preach and
lead Sunday and Wednesday services
in the Senior Pastor's absence; Lead
and preach Friday night services; Train
cell group leaders in biblical teaching
and group management; Direct Bible
studies for adult congregants and
fellowship groups under the Senior
Pastor's supervision; Provide spiritual
counseling to adult members;
Coordinate year-round home
visitations within Fairfax County, VA
(including the BLS area). 40hours/
week. M.Div. in Theology or equivalency
req'd; ordination req'd. Send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
Employer & Job Place: The Church For
All Nations at 8526 Amanda Place,
Vienna, VA 22180

사무/경리 직원을 구합니다.
-월-금, 9 am - 3 pm (시간 조정 가능)
-근무지 애난데일
이력서 : kdclass2018@gmail.com

치과 조무사, 리셉셔니스트 구함
월, 화, 목, 금 8시 - 5시 근무
무경험자 시간당 \$20
▶naturadent@gmail.com

첼트리 롯데 마트안에 위치한 금산인사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분을 구합니다.
-판매하실 여자 직원
-주 40시간, 주말 가능 하신분
문의 : 201-923-3886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e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acct2014a@gmail.com

첼트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경력 무관
-이중 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건강 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 account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 hr@worldbankcard.net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
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 k546272@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시니어 데이케어 시설 긴급 매매

센터빌 한인타운 중심가,
교통 편리한 곳에 위치한
어덜트 데이케어 시설을
인수하실 분을 찾습니다.

- 약 6,000 sq. ft. 규모
- 최대 100명 수용 가능
- 5년 장기 렌트 계약
- 시니어 데이케어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장비 완비
- 즉시 운영 가능한 최적의 환경,
별도의 투자 없이 바로 시작 가능

문의: 571-278-8811

매매



40년 성업중인
테일러 샵



- ★ 은퇴관계 매매
- ★ 좋은 조건
- ★ 리치몬드 중심지



문의 : 전화 or 문자

703.937.7261

직원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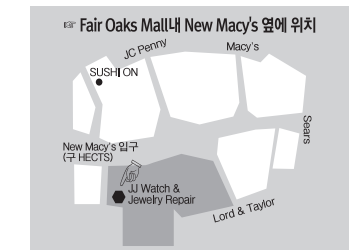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미디어 중앙

안과에서 리셉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서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universal.com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 (월-금)
401(K), 차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트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현존 H마트안에 있는 민가네 한식당에서 카운터보살분 구합니다.
703-638-8876

페어팩스 Sushi Friends Hashi 에서 스시쉐프 구합니다.
(영어필수,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요망)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파트타임 모두 가능
▶571-991-4172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스토어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빨래 깨끗이 빨아줄 공장을 찾고 있으며, A급 스팟맨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703-966-9072

기타 구인

실버스프링에 거주하는 70세 여성입니다.
함께 가족처럼 지내실분을 찾습니다.
여자분에 한함, 숙식 제공
240-997-3168

스파에서 바다 필링 하실분 구함
-여성분,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가능)
-스테포드, VA
문의: 540-368-9699

가사도우미 급구 - 장기 근무 환영
요리·세탁·청소 등 기본 가사
오후 12시-7시
McLean 깨끗한 가정집
안정적 장기근무 / 대우 좋음
연락: 703-795-1896

밀워크 캐비닛 공장서 목수 구합니다.
덜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애견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문의: 571-660-8182

B3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No. 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페어팩스 팬암쇼핑센터 뒤 (페어팩스 서클근

처)타운하우스 렌트 \$2,750
방4, 화3.5, 네고 가능
703-865-1150

첸틸리타운홈 렌트 \$3,200
2014년 지은 새집, 엔드유닛, 2,200sq.ft., 방4, 화2, 차고 1, 밝고 환한집, 집 전체가업 그레이드됨. 한층으로 된 편리한구조, 롯데 및 코스트코 가까이
▶703-477-3114

비엔나타운홈 \$3,100
방3, 화2, 전체마루, 옥튼 하이스쿨, Mosaic El, RT 123/29/50/88
▶571-239-6054 (문자)

페어팩스 코스코 옆타운 홈 \$4,000
방3, 화2.55, 차고2, 2019년, 7월1일 입주 가능, RT 66/50/286/29
▶571-239-6054 (문자)

센터빌싱글홈 지하 전체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모두 독립적인, 주방, 세탁 설비 완비, 올 리모델링, 주차공간 충분, 펫 가능
571-214-0404

페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요망)

센터빌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편리한타운홈, 업데이트한부엌 (그래닛카운터탑, 새냉장고), 새마루, 새페인트, 잘수리된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파킹 2개, Visitor 파킹다수, 교통편리
▶703-477-3114

콘도 렌트

애난데일 H마트 근처콘도 렌트합니다.
방2, 화1, 7월1일 입주가능
571-277-7758

업그레이드된 밝고 환한콘도 \$1,700
방1, 화1, 새나무마루, 넓은리빙룸, 나무가 보이는경치, 편리한 1층, 새페인트, 넓은새발코니, 물값& Gas값포함, 교통편리
Falls Church, 애난데일 10분
▶703-477-3114

센터빌콘도 렌트 \$2,000
방2, 화2, 나무마루, Granite Counter Top, 탁트인구조, 업데이트된부엌과 화장실, 넓은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콘도, 롯데마트 근처, 교통편리
▶703-477-3114

방 렌트

센터빌싱글홈 지하전체 렌트, 워크아웃, 주방시설 완비, 교통편리
571-344-2923

스프링필드 조용한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간단취사,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애난데일 한강식당 근처 큰싱글홈 방들 렌트, 교통편리, 주차넉넉 (메세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예촌앞타운홈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가능, 직장인/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시루앞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가능,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973-8123

게인스빌싱글홈 베이스먼트전체 렌트
워크아웃, 방2, 풀베스, 리모델링된주방, 새세탁기/건조기, 새페인트, 새플로어, 여성분 환영
703-501-4478

애난데일 원룸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개인주차
571-232-6052

헤이마켓도미니언밸리리젠시골프장안에 있는싱글홈 2층전체 렌트
방1, 리빙룸, 풀베스, 골프장화원가능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516-242-8466

애난데일 방하나 렌트합니다.
간단취사, 유포, 가구포함
703-677-1889

센터빌 (New Braddock Road) 타운홈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저녁 6시 이후 전화요
703-606-0053

애난데일 H마트 근처타운홈방하나 렌트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취사, 욕실별도,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30-7121

센터빌극장근처타운, 방, 화장실, 마루, 파킹, WIFI, 학생/여성분 환영
571-239-6054 (문자)

애난데일싱글홈방렌트,
495, 노바&조지메이슨 6분, 가구일체, 인터넷, 금연자, 여자분 환영, 주차넉넉
571-205-0903

로튼싱글홈 워크아웃 지하전체 렌트
방2, 거실, 부엌, 화, 세, I-95 1마일거리, 가족환영, 출입문 별도
703-774-4939

센터빌H마트 5-10분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K마켓뒤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넉넉
703-965-2343

센터빌H마트 근처베이스먼트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에버그린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 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스토어, 커피숍
문의: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킨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센터빌타운홈 \$739,000
엔드유닛, 2 car garage 전면 벽돌,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멋진 경치, 넓은 부엌과 거실, 나무마루, 넓은 안방과 화장실,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넓은 텍, 펜스 있는 뒷마당, Visitor parking 다수, As is condition
2. 애난데일 오피스 매매 \$280,000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703-813-8949

1. 페어팩스 뉴타운 홈 매매
2. Langley high school 학군지역주택 매매 (703) 677-1889

1. 센터빌종장교회근처싱글 \$1,050,000
방3, 화3, 5 에이커 전원주택, 최신수영장
2. 레스톤싱글홈 \$855,000
방7, 화3.5, 워크아웃 부엌, 차고 2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톤 렉서리타운 \$850,000
방3, 화3.5, 차고 3
▶703-489-6926

1. 페어팩스타운하우스 \$849,000
방3, 화3.5 ** Comming Soon
2. 애난데일싱글 \$649,000
방3, 화2 ** Comming Soon
3. 애쉬번 렉서리타운 \$929,000
방4, 화3.5, 차고2, 최고학군, 2015년, 3,660sqft, RT50/66/267, 덜레스공항, 교통요지
4. 애난데일싱글 \$720,000
애난데일 중심, 방3, 화2, 0.23acre, 넓은 마당/창고, 교통편리, 생활편의시설, 495/95/Backlick Rd
5. 센터빌스톤게이트콘도 \$379,000
방2, 화2, 콜린 파워츠, 센터빌고, 교통중심
▶571-239-6054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앗간/반찬/잔치음식 전문점



낙원떡집

케이터링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각종 행사
- 백일/돌잔치/생일 음식
- 잔치 음식
- K-Food & Hibachi Food
- 반찬 전문

Coming Soon

각종 떡, 단채 도시락, 김밥 주문 받습니다.

김밥 단채주문 환영합니다.

각종 반찬 만들어 드립니다.

참기름 짜드립니다. (기계 있음)

"매장 식사 가능"



PARADISE CATERING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직원 모집

미디어중앙에서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편집/광고 디자인 0명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 프리미어 •일반 사무직/경리 0명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분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 소개서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메일: kdclass2018@gmail.com

미디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구인/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1. 브리스토 타운홈 \$689,000
Victory 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 편리,
6/25일에 마켓에 올라올 예정
2. 애난데일 싱글홈 \$700,000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땅의 집, 생활 가능하
나 As-Is Condition으로 매매
3. 비엔나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703-625-9909

클럽톤 콘도 \$379,000
호수를 품고 있는 멋있는 단지, 방2, 화2, 완전
히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
분 거리
▶703-813-8949

1. 센터빌 타운홈 \$595,000
방3, 화3.5, 2 assigned parking
지붕, 부엌(2024), 욕실(2026), HVAC등
업그레이된 집
2. 클럽톤 싱글홈 \$1,120,000
방4, 화3.5, 집 전체 수리 많이 된 집
3.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1 + 덴,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 마루,
넓은 욕, 가스/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703-919-0472

1. 페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교
이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
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703-231-5572

사업체 매매

1. DC-델리, 조지타운 대학근처,
단독건물 AP 19만
2. DC-주5일 고급벨리, 짧은 영업시간,
주인 은퇴, 주 3만 이상 매상 AP 78만
3. VA-한국 분식점, 사뮈얼내
매니저 운영중 AP 50만
4. VA-월남식당, 대로변, 높은 매상 AP 48만
5. MD-KBBQ 식당, 좋은 시설,
대로변 쇼핑센터 AP 35만
6. MD-치킨전문점, 좋은상권, 초보자 운영
가능, 초대형 쇼핑센터 AP 40만
▶이덕주 (703)303-8003

페어팩스 일식집 \$50만
1년 순수익 \$20만, SBA융자 가능
▶703-496-4989

성업중인 픽업스토어 매매
스타포드 \$6만불
픽업스토어 건물 매매 \$42만불
Tel: 703-231-5673

**K BBQ & HOT POT 급매 \$215,000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최근 리모델링, 게이더스버그
240-988-6868

**미장원 급매
5일 영업, 월 순수익 \$6,000,
알링턴 VA, 좋은 동네, 발전 가능성 많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 박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 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수 있는 자리
리스 스페이스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매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컨비니언 스토어
\$1.95M 코너랏, 단독 빌딩 유니언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 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골프등,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매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6일 오픈, 월 순수익 2만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 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 순수익 3만 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 박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 최적의 입지 :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 완벽한 설비 시설
-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 703-678-9790
영어 : 703-499-2466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 월 1만5천 순수익
- 매매가 15만 + 인벤토리
- 메니지먼트 가능, 피터스버그 VA
(문의)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 고정 단골 손님 많음
- 월세 \$2500, 월 순수익 \$6천 이상
-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판티코 VA, 군 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 sf \$1.1M
2. 페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sf
임대 원료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 sf, 1층 대로변, 포토맥 야드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 매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스타포드)
아웃수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문의 :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콧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 sf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옆 픽업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중고 매매 / 기타

아마하 피아노 무빙 관계로 싸게 팝니다.
상태 아주 양호
443-980-4505

명품 중고 골프 클럽 싸값에 팝니다.
703-966-9072 (Kim)

케이 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 8/10 - 8/14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폴업선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임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30년 경력,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건축/페인트/마루

밀워크 캐비닛 공장에서 목수 구인
덜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샤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덱,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센
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 Out), 덱 메인터넌스와 클
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덱,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Paul Kim(수봉) 종합보험
메디케어 □ 생명 □ 연금 □ 자동차 □ 집 □
사업체 □ Worker's Com 보험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합니다!
▶703-223-6961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703-598-3316

옵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 가스 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팅,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리닝,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 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 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
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 파워스
탐상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웍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703-989-0103

홀스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 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 교체, 섀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 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팎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
업, 각종 철거 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이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 이
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 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 보험 확실한 세관 처
리 및 서류 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 이사, 포
장 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P.C 집수리 센터
집 안팎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 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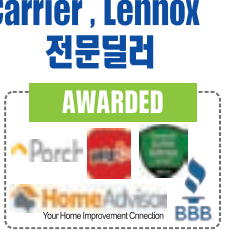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자동차 운송 ·무료견적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분실 / 파손 보험커버 ·VA/DC/MD↔NY 정기운행
·쓰레기 처리가능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눈썹, 아이라인, 입술
·속눈썹/헤어 생장술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 (Platinum)
·K14, K18, Setting 전문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셋팅 전문
·순금 아기돌 반지 팔찌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 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텝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Homes Plumbing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크펌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License / Insurance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낱말퀴즈 & 스도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가로열쇠
(1)마음대로 늘어거나 줄일 수 있는 몽둥이. 손 오공이 사용하며, 무게는 1만 3500근이다 (3)자기 눈에 물 대기.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 하거나 행동함. □전□□ (5)물이 두 줄기로 갈 라져 흐르기 시작하는 산마루나 산맥 (7)자동차 따위가 앞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음 (9)앉지도 서 지도 아니하고 몸을 반쯤 굽히고 있는 모양. □ □주□ (11)다니기 힘든 험한 벼랑 같은 곳에 선 반을 매듯이 하여 만든 길. 출렁다리에 이어 이 번엔 ~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12)창 피하고 부끄러움. ~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대 하고 싶지 않다 (13)총의 아래부분.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며, 사격할 때 어깨에 받치는 데 쓴 다 (14)딸의 남편 (15)어떤 곳에 처음으로 감. 첫길 (16)사실보다 과장하여 터무니없는 헛된 생 각을 하는 증상. □대□□ (19)방문하여 찾아봄 (21)어떠한 것을 밝히거나 찾아내기 위하여 빛을 멀리 비추는 조명 기구 (23)낮에는 농사짓고, 밤 에는 글을 읽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꾀꾀이 공 부함 (24)기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베푸는 연회, 결혼 ~

세로열쇠
(1)3년과 같이 시간이 길게 느껴짐.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일각이 ~라 애타게 임을 기다린 다 (2)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만든 무덤 (3)양 손에 하나씩 들고 팔운동을 하조 (4)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수레 (6)국 내의 상품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8)아기 첫돌 이 되는 날에 가족 친지가 모여서 축하하조 (9)이치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 (10)민속무에서, 춤의 기본이 되는 낱날의 일정한 동작. 열두 자락 치마폭을 펼렁이는 진이의 ~는 마 지 한 마리 나비와도 같았다 (12)생강, 계핏가 루, 꽃감과 잣이 들어가는 전통 음료 (13)하루도 빠짐없이 나온 사람에게 주는 상 (14)요행을 바 라거나 노리는 마음 (17)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보이도록 만든 장치 (18)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 는 조류 중에서 가장 큰 새. 몸무게 약 155kg (20)광지를 달고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네모반듯 한 연 (21)어떤 글이나 책 따위를 열중하여 읽음 (22)납포등에 덧씌우는, 유리로 만든 물건. 저녁 마다 그는 납포에 석유를 붓고 ~를 달고 어둠을 기다렸다

스도쿠

				5		6		4
	8		1	7	3	5		
5	2	9		6	4			
					8			
4		3		2			5	8
7	5					3	1	2
2	4	5			9	8	7	3
1			2					5
				4	5	2	6	



자료제공=골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1	9	2	5	4	3	7	6	8
5	6	4	7	8	2	9	3	1
3	7	8	6	1	9	5	4	2
2	1	3	9	6	4	8	5	7
8	5	9	1	2	7	3	6	4
9	4	7	8	3	5	2	1	6
7	3	1	4	9	8	6	2	5
9	2	5	3	7	1	4	8	6
4	8	6	2	5	9	1	7	3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